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32.59	↑ 코스닥	1137.68
	(+280.72)		(+35.40)
↓ 금리 (연율)	3.310	↓ 환율 (원/달러)	1468.30
	(-0.110)		(-27.20)



## 유가 다시 90달러... 출렁이는 韓경제

(서부텍사스유)

美 트럼프 '중전 압박' 공언 국방부는 "시작일 뿐" 입장 정부 '언어 신뢰도' 따지며 중동전쟁 대응책 마련 총력

극심한 혼란으로 시장이 연일 심하게 출렁이는 가운데 정부와 경제계는 해답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 '언어의 신뢰도'까지 따져야 하는 영역에 들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기자회견 및 공화당 연설 등에서 이른 시일 내 전쟁 종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대국 이란이 하메네이의 차남을 후계자로 내세우고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을 지속·확장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중전 압박' 공언이다.

물론 물밑에서 서방과 러시아·중국 등이 중재에 나서 휴전에 이를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이나 중전 논의에 화답했는지에 대해선 밝힌 바 없다.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전쟁의 결말은 우리가 결정



사실때 We Sell 밤사이 국제유가 급락으로 1,500원 턱밑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떨어진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전소에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95.5원)보다 24.7원 내린 1470.8원에 출발했다. /뉴시스

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게다가 미 국방부는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을 사화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밝혔다. 자국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중동전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총력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중전' 발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전투에서는 연막전술도 많이 쓰인다. 트럼프의 발언이 연막인지 여부는 시간이 판단한다. 그러나 10일 주요 시장지표는 그의 한마디에 일단 동요하고 출렁였다. 원유 가격과 세계 증시를 위락파락하는 모양새다. 일단 전날 100달러를 훌쩍 넘

었던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였다. 10일(한국시간) 오후 3시 40분 기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90달러 밑에서 거래됐다. 배럴당 110달러를 향해 치솟던 북해산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95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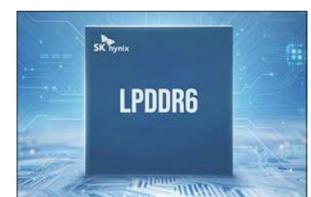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 SK하이닉스, 10나노급 6세대 공정 세계 첫 16Gb D램 LPDDR6 개발

저전압 특성... 하반기 공급 전송 데이터량 33% 향상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6세대 D램 '1c LPDDR6'.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기가비트) 차세대 저전력 D램 'LPDDR6'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LPDDR6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용 제품에 들어가는 D램으로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전압 특성을 갖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CES 전시에서 해당 제품을 공개한 이후 최근 세계 최초로 1c LPDDR6 제품 개발 인증을 완료했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내 양산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해 인공지능(AI) 구현에 최적화된 범용 메모리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c LPDDR6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제품에 주로 활용된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SK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제품인 LPDDR5X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개선했다.

이 제품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대역폭 확장을 통해 단위 시간당 전송 데이터량을 늘려 이전 세대보다 33% 향상했다. 동작속도는 기본 10.7Gbps(초당 10.7기가비트) 이상이며, 이는 기존 제품 최대치를 상회한다.

SK하이닉스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길어진 배터리 사용 시간은 물론, 최적의 멀티태스킹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

## 중동 리스크 확산... 석유화학 재편 '안갯속'

이달 산단 사업재편 논의조율 원료수급 불안 확대시 정부-기업 재편방향 엿갈려

이란 사태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논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산업 재편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유가 상승과 원료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사업 구조 개편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여수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사업 재편 논의를 이달 말까지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수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는 설비 감축을 포함한 사업 재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 단지에서는 여천NCC를 중심으로 설비 감축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가동을 중단한 여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여천NCC

수 3공장에 이어 2공장까지 추가로 멈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수 2공장과 3공장의 에틸렌 생산 능력은 각각 연간 91만5000톤과 47만톤 규모로 두 공장이 모두 멈출 경우 약 14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여천NCC의 에틸렌 생산량은 기존 약 230만톤에서 90만톤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울산 산업단지에서도 사업 재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스오일(S-OIL) 등 주요 업체들이 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최종 개편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업 재편 논의의 배경에는 악화된 업황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석

유화학 업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주요 6개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 손실은 총 1조650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호황기에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던 산업 구조가 흔들리면서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천NCC는 최근 납사(나프타) 조달 차질로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는 등 정상적인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정세가 언제 안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들도 대응 방향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12일 우선처리...예결위 원장 진성준 추천  
▲이 대통령 "한화오션 노동 이종구조 개선 모범적 사례...상생문화 확산" /사진 뉴시스

▲정청래 "노동절 개칭에도 헌법엔 '근로자'...개헌 필요성"  
▲김근식 "장동혁, 2선 후퇴하고 보령·서천 '하방' 결단할 때"

▲윤희근 예비후보 "나는尹절연...다른 후보도 입장 밝혀라"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면접 시작...“與와 호남 경쟁·영남 연대”

# 건설업계, 공사비 지속 상승... 해외 프로젝트 등 수익성 '비상'

1월 건설공사비지수 사상 최고 에너지·물류 등 비용부담 가중 일부 해외현장 공정지연 가능성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발 중동 사태로 해외 프로젝트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공사비 상승도 예고됐다.

1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다. 전년 동월 대비 1.72%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년 127.10으로 3년간 30% 가까이 뛰었다. 2024년 1월 129.77, 2025년 1월 131.03 등으로 다소 안정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와 물류비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 건설업계에는 직격탄이다. 지난달 말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자재 수급 우려는 커졌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동 사태가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가격 전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조금 고개를 들고 있던 분양 시장에 공사비 인상, 물가 상승, 소비 침체의 대의 변수 양상은 심리적 타격도 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현재 건설업은 저수익 현장은 종료됐으며, 아직 초기 공정률의 프로젝트 비중이 높다"며 "원가변동을 충분히 내재화하며 리스크를 관

리할 수 있는 단계로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비가 급등했던 지난 2022년보다는 압력이 낮을 것이라 의견도 나온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원가 급등의 핵심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는 착공 물량 증가에 비해 현장 인력 공급이 따라오지 못했던 인력 수급 불일치에 있었다"며 "유가 상승 자체는 부담 요인이지만 이번 국면은 2022년보다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

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공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기자재 수급과 안전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현재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인력과 자재 이동 제약, 물류 불안정 등이 일부 프로젝트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24~2025년 일부 건설사가 해외 대형 공사 현장의 공정 차질과 추가 원가투입으로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공정 지연과 공사비 증가가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건설사들이 주력하는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대부분으로 외부 여건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신규 발주나 협상 중인 프로젝트 착공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1면 '유가 다시 90달러'서 계속

## 정부, 추경 가능성 시사 "한계기업 등 지원 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기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 순번의 추경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항공화물 운송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중동 국가 여럿이 영공을 폐쇄했다. 전 세계 항공화물 수송량의 약 20%가 중단됐고 가전제품·의약품·귀금속 등의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값 오름세도 둔화했다. 지난주 2~3%대의 일일 상승률을 기록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같은 시간 리터(1)당 0.24% 오른 1907원 선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은 하루 새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 5.96% 급락한 데 이어 이날은 반대로 5.35%(+280.72포인트)나 도약하며 5500선을 되찾았다. 원·달러 환율도 1469.3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6.2원 내렸다.

이른바 시장 "호제"로 작용한 트럼프의 발언이 수일 내 신빙성을 입증하게 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논평은 하지 않은 채 민생·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1면 '중동리스크 확산'서 계속

## 수급 안정대책 변수 작용

다만 구조조정 논의의 방향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원료 수급 불안이 확대될 경우 정부는 구조조정보다 납사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정책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원료 가격 상승과 업황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경우 사업 구조를 서둘러 정리하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어느 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며 "정부 입장에서 구조조정보다 당장 납사 수급 안정이 더 급한 과제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 공급이 막히면 공장 가동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 정부도 지원 방안과 수급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압박과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사업 재편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료 확보 대응에 집중하면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 당정, '석유류 최고가격제' 추진... "비정상적 인상 차단"

###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회의

UAE산 600만배럴 원유도입 확정 금융시장·민생물가 안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중동사태로 촉발한 석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TF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동사태에 편승해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했는데,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제도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며 "이는 모니터링 단계지만 실제 조치는 '경계 단계' 이상의 조치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면 최고가격제 같은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뉴시스

경우"라고 했다.

안 의원은 석유류 가격 급등을 틈탄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2000 케이스 정도 집중 조사했고 엄중한 제재 내용 등 실적을 조만간 발표하려 준비 중"이라며 "통합 조사 대상으로는 사재기, 담합 세무조사, 불량 품질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TF는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 안정 ▲외환 금융시장 안정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산 600만배럴 원유 도입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국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비축 기지에 (원유) 686만배럴이 있다"며 "필요하면 이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계약에 따라 정부에 우선매수권이 있

다"며 "직접적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비축유를) 동원 가능한지 쪽 점점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에서 요구하는 원유 다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중동 거주 비용 차액을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물류가 봉쇄돼 차질을 빚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24시간 외환·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의원은 "국회에서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는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 3법을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해외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했을 때 세금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뉴프레임워크'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안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도 있었는데, 그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업계 소통 강화... "피해 최소화 총력"

간담회 통해 수산물 수출 피해 파악

해양수산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수산물 수출 피해규모 파악에 나선다.

해수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11일 서울 모처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 6곳이 참석한다. 또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기관 5곳도 동석한다.

해수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의 피해·어려움이 발생할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이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계약에 따라 정부에 우선매수권이 있

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유가 급등·강달러 압박에 환율 출렁... 외환시장 불안 고조

브렌트유·WTI 2022년 이후 최고치 원·달러 환율 1460원대 날뛰기 지속 정부·한은 “과도한 변동성 뺄 조치” 트럼프 출구전략 시사에도 불안 여전

올해 들어 안정세를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연일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촉발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유가가 상승하고 달러의 강세가 뚜렷해지면서다. 정부와 외환당국이 개입 의사를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유가·달러 강세...정부·당국 개입

10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69.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지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전일의 주간 증가(오후 3시 30분 증가)인 1495.5원과 비교해 26.2원 급락했지만, 연중 최저치인 1월 22일의 1422.5원과 비교해선 가격이 40원 이상 높게 형성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사태’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관측에 원유 가격이 상승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로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발표했다. 호르무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협은 오만·아랍에미리트(UAE) 사이에 위치한 해협으로,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2~30%,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가 이란령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다. 중동산 ‘두바이유’의 수요가 ‘텍사스 유(WTI)’와 ‘브렌트유’로 이동하면서 유가가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해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는 런던 거래소에서 전일보다 16.2% 오른 배럴당 107.70달러까지 올랐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WTI는 19% 상승한 108.15달러에 거래돼 202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유가는

다음날 배럴당 90달러 전후까지 하락하며 조정에 돌입했지만, 올해 초와 비교해선 여전히 50% 가량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유가가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달러도 뚜렷한 강세다.

지난 9일 달러 가치의 지표가 되는 달러지수(DXY)는 장중 99.69까지 상승(100을 기준으로 클수록 달러 강세)했다. 증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5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빠르게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물가 상승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사태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으며,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확인했다. 유 부총재는 “현재 금리 및 환율이 중동 지역 리스크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추가 대응’ 준비를 주문했으며, 다음날인 10일에는 유류세 인하·가격 상한제 도입 등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출구전략’ 제시...중동사태 ‘새국면’

‘중동사태’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관측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될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장악 가능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중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최

근의 고유가·고환율 상황도 새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전쟁은 마무리 수순에 있고, 이란군은 해군도 없고 통신도 없으며, 공군도 없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란은 그러면 약삭빠른 행동도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석유의 흐름을 막는다면 미국은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강한 타격을 가할 것이며, 이란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라고도 적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출구전략을 제시한 배경에는 정치 및 경제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며 “출구전략의 제시하는 제2의 러-우 전쟁과 같은 전쟁 장기화 리스크를 완화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이란발 불씨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닌 만큼 당분간 국제유가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작년 1.0% 성장 그친 경제... 올해 2% 반등 시나리오 ‘흔들’

건설·제조·수출 부진에 경기 힘 빠져 기존 2.0~2.1% 성장 전망에도 하방 압력

지난해 한국 경제가 연간 1.0% 성장에 그치고 4분기에는 다시 -0.2%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2% 안팎 반등 전망의 출발점 자체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화 환율과 시장금리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한국은행과 주요 기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에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0% 성장하는 데 그쳤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4분기에 다시 전기 대비 0.2% 감소해 연말로 갈수록 성장 탄력이 약해진 모습이 확인됐다.



6일 부산 남구 신산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내용도 좋지 않았다. 4분기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기계·장비 부진으로 1.5% 줄었고, 건설업은 건물·토목이 동반 감소하며 4.5% 줄었다. 지출 측면에서도 민간소비는 0.3% 늘었지만 건설투자는 3.5%, 설비투자는 1.7%, 수출은 1.7% 각각 감소해 소비를 제외한 성장축이 전반적으로 흔들렸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건설업은 9.5%, 건설투자는 9.8%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자금 흐름도 경기의 체력을 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한국은행이 전달 발표한 산업별대출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은 8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직전분기 20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운전자금 증가액이 13조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급감해 기업들의 연말 자금 운용이 한층 보수적으로 돌아섰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 반등 전망이 이런 약한 기저 위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0%로 제시했고, 총재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회복을 반영해 기존 1.8%에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당시에 건설투자 회복 지연, 미국 관세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을 성장경로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IMF와 KDI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9%로, OECD는 2.1%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변수가 갑자기 커졌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중동발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의 약 70%, LNG의 약 2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물 경우 수입물가와 기업 비용을 끌어올리고, 이는 소비 회복과 수출 채산성, 통화정책 운신 폭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면은 ‘작년 1.0% 성장의 낮은 출발점’ 위에서 ‘올해 2% 안팎 반등’을 기대하던 시나리오에 새 하방 변수가 추가된 것이다. 건설 부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도 4분기에 힘이 약해졌고, 여기에 유가·환율 충격까지 겹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이 2.0~2.1%에서 다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WTI 선물이 전주 말 12%대 급등한 데 이어 당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고, 유 부총재도 금리와 원화환율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전쟁 충격마다 증시는 돌아왔다”... 다만 빗투 변수는 여전

과거 전쟁 뒤 코스피 반등 반복 레버리지 확대에 변동성 확대

중동 군사 충돌 여파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거 전쟁과 지정학적 충돌 국면에서 증시가 일정 기간 이후 반등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증시

역사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사례는 지난 9일 서킷브레이커를 제외하고 총 7차례다. 대부분 시장 공포가 극대화된 시점에서 발생했다.

서킷브레이커는 ▲미국 닷컴버블 붕괴(2000년 4월17일) ▲닷컴버블 붕괴 및 대우차 매각 무산(2000년 9월18일) ▲9·11 테러(2001년 9월12일)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3월13일)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3월19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2024년 8월5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2026년 3월4일)에 발생했다. 이들 사례 이후 코스피는 30거래일 전후 평균 약 9.9% 반등하며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과 군사 충돌 사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대신증권이 과거 12차례의 전쟁과 군사 충돌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는 약 20거래일 후 평균 3.6% 상승하며 충격 이후 추세 복귀 흐름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2001년 9·11 테러 직후 코스피는 하루 만에 12% 넘게 급락했지만 이후 한 달여 만에 테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전쟁 발발 이후 단기 변동성을 거친 뒤 점차 상승 흐름으로 전환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서킷브레이커는 통계적으로 시장 공포가 극대화된 시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 구간 역시 역사적으로 강한 지지

선으로 작용했던 밸류에이션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시장은 레버리지 투자 확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 전체 차원의 레버리지 장세가 전개되는 국면”이라며 “하루 급등 이후 다음 날 급락이 나타나는 등 당분간 큰 폭의 변동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 metro

# 삼성·SK하이닉스, 이사진 보수 정비... 반도체 성장 대응

삼성전자, 이사 보수 최고한도 기존 360억 → 450억으로 상향  
반도체 기술진 중심 이사회 재편  
SK하이닉스, 보수액 동일하지만  
주식 보상으로 자사주 3만주 추가  
반도체 전문가 이사회에 배치



삼성전자 서초사옥.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진 보수 한도 조정과 함께 반도체 기술 전문가를 이사회에 전면 배치하는 안건 등이 주요 관련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하며 SK하이닉스는 오는 25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삼성전자의 주요 안건으로는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 사내·사외이사 선임 ▲ 정관 일부 변경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 보수 최고 한도를 기존 3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5% 가량 상향되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보수 한도를 43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16.3% 줄이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보수 한도는 일반보수 260억원, 장기 성과보수 190억원으로 구성했다. 이사 수는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직무와 경영 성과, 대내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시스

외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 체제 정비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18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내년에는 2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진을 중심으로 이사회 재편에 나선다. 김용관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

문 경영전략총괄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허은영 서울대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도 상정된다.

다만 주요 관심사로 거론됐던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이사회 보수 한도를 축소할 것과 달리 올해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확대한다. 회사는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를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반면 올해는 기존 150억원에 더해 현금과 별도로 장기 성과급에 대한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을 올린다. 보수액 150억원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주식 보상으로 자사주 3만주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3만주는 보통주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300억원 규모다. 이는 삼성전자와 합치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차선용 미래기술 연구원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반도체 기술진을 이사회에 배치했다.

차 원장은 SK하이닉스에서 D램 코어 TF 담당, D램 개발 담당 등을 맡은 반도체 기술 전문가다.

회사는 차선용 차세대 메모리 기술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이끌어 온 반도체 기술 리더로 평가하며 "고도화되는 기술 경쟁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경영 체제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범용 D램 등 관련 부품 공급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 조항도 손질된다. 개정된 상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은 이사총설 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도입 등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추진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SK telecom 배당 재원 확충 kt 대표이사 공식취임 LGU+ 데이터센터 도약

SKT, '규제·보안' 이사회 구성  
KT, 실무형 전문가 체제 탈바꿈  
LG U+, '안정 운영·재무 통제' 무게

통신 3사가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 체제 정비에 나선다. 사내외 이사 선임과 배당 정책 조정, 사업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이 일제히 상정되면서 각사가 준비 중인 중장기 전략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중심의 사업 재편 흐름 속에서 통신사들의 경영 전략 변화가 주총 안건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

해보면 오는 24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6일 SK텔레콤, 31일 KT가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대략적으로 상법 개정에 맞춘 정관 변경안을 처리하고, 이사회 구성 개편과 배당 정책 조정 등 주요 경영 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정재현 최고경영자(CEO)의 사내이사 선임과 배당 재원 확충에 주력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태 여파로 분기배당과 기말배당을 중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준비금 1조7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주주들에게 배당소득

세 면제 혜택이 있는 감액배당을 실시해 실질적인 수익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사회 구성도 규제 대응과 보안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 법제 전문가인 이성업 고려대학교 교수와 AI 분야 권위자인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 글로벌 자본 시장 전문가인 임태선 전 골드만삭스 한국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영입해 거버넌스 공백을 메우고 해외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한다.

KT는 주총에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의 대표이사 공식 취임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진행한다. 박 내정자는 취임 후 AI와 데이터센터, 6G 통신망 등

기술 현안을 중심으로 조직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또 B2B 전문가인 박 대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B2C 사업 강점이 있는 박현진 사내이사 선임도 추진하며 경영진 구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실무형 전문가 체제로 탈바꿈한다.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 출신인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사장을 영입하고, 네트워크 전문가 김영한 숭실대학교 교수와 회계 전문가 서진석 EY한영 전 대표 등을 합류시켜 전문성을 높인다.

가장 먼저 주총을 치르는 LG유플러스는 종합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의 도약을 선언한다. 정관을 고쳐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 운영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 펀딩, 전력 사용 승인까지 사업 범위를 전방위로 넓힌다. 내년 준공 예정인 파주 AI 데이터센터를 필두로 그룹의 역량을 결집하는 '원 LG' 전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안정적인 운영과 재무 통제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 이상우 경영전략 부문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해 계열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여명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해 AI 인프라 확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

## 고려아연 vs 영풍·MBK, 의결권 대리행사 두고 신경전

고려아연, 대리행사 권유 업체 고소  
영풍·MBK "모든 절차 내부통제 거쳐"  
이사 선임 규모도 '5인 vs 6인' 엇갈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영풍·MBK)가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의 고려아연 사칭 의혹을 둘러싼 사실 여부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이번 주총 안건 평가에 대해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서울중로경찰서에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고소에서 해당 직원들이 자신을 고려아연 측 사람으로 꾸미고 주주들과 접촉했던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사원증처럼 생긴 신분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을 만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자택 앞에 '고려아연' 사명이 적힌 안내문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주들이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으로 오인하고 위임 여부를 검토·결정했던 주장이다. 또 지난 2025년 임시주총을 앞두고도 '고려아연' 사명이 함께 적힌 명함을 배포, 혼란을 줬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고소를 진행했다.

반면 영풍·MBK 측은 모든 권유 절차를 법률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했으며 위법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명함 등에도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표시했을 뿐, 영풍·MBK 대리인임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지난해 1월 임시주총 및 3월 정기주총에서 불법적인 상호

주 형성을 통해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침탈한 당사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측은 ISS 자문 보고서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맞붙고 있다.

ISS는 이번 주총의 핵심 쟁점인 이사 선임 규모에 대해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인 선임안'에 찬성을 권고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맞춰 분리선출 감사위원 1석을 별도로 뽑기 위해 한 자리를 남겨두는 구조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영풍·MBK가 제안한 '6인 선임안'에 대해서는 단기적 전략적 이익을 위한 주장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사 후보 개인에 대한 권고에서는 양측 모두 일부 지지를 받았다. 다만 결정적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는



/양성운 기자 ysw@metro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제약업계, 약가인하 마지노선 '10%' 통첩

약가제도 개편에 비상 경영체제 돌입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맞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업계는 정부가 해당 정책을 강행하는 경우 연간 3조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약가 인하 폭 10%'를 마지노선으로 정부에 최후통첩했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 제네릭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현행 53.55%에서 40%대

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건정심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연기된 상황이다.

비대위는 우선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생존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제네릭 약가 인하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기업들은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줄였다.



/이청하 기자 mlce236@metro

#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 중동 긴장에 물가 비상...李, 유류세 인하·추경 검토 지시

경제 위해 국가적 역량 총동원 주문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등 덧붙여  
소상공인 지원 등 추가 재정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데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공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생 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대해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 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 실제 (원유)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결국엔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식 중에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보완하려면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 ▲

유류세 인하+유류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유류세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이걸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 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의 방법은 꼭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며 “유류세 좀 내리고 서민 재정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섞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중도 정책 판단, 결단의 영역인데 저는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자)”며 “똑같은 재원이면 일률보다는 차등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섞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10% 더해주든지 직접 지원을 늘리든지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어려운 겪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일이 많겠지만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재차 언급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한 자원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채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호랑이도 풀밭 있어야... 상생 생태계 조성” ‘절운 선언’ 국힘... 장동혁은 이틀째 침묵

이 대통령, 대·중소기업과 간담회  
하청에 동일 성과급 준 한화오션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에 대해 “지속적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에는 속된 말로 ‘물뽕’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면서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다. 혹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건강한 토끼와 또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상생협력은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또 원·하청 직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한화오션에 “노동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가 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감사드린다. 한화오션 사례와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

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기업의) 경영인들에게 전체 생산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얼마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개 많으면 20% 적게는 7-8% 정도까지 떨어진 다”며 “그 (적은 비율의) 인건비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까지 아끼면서 (노동자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고용 유연성 등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런걸 고려하더라도 약간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를 들어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 발표

국민의힘이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며 ‘절운(絶運·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두고 당 지도부가 떠밀리듯 결정한 것이라, 이후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9일) 오후 국회에서 3시간여의 의원총회를 마친 후 결의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과 ▲윤 전 대통령 정치 복귀 요구에 반대 ▲당내 통합 ▲헌법 가치 존중 등 동의하는 국민과 연대 등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송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장 대표도 ‘절운’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40일만에 겨우 떠밀리듯 ‘절운’ 선언을 했다는 지적에서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지방선거를 불과 86일 앞두고 사과를 한 것은, 선거 참패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이번 결의문으로 당내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을 맞긴 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 노선 정리가 선결 과제라며 공천 접수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철회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할 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한국노총 창립 제8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능성이 있다.

그리고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무죄 추정 원칙’ 등을 언급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던 장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문제다. 장 대표는 여이틀째 침묵을 유지 중이다.

장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하거나 한 전 대표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별 말 없이 메모만 했다고 한다. 이날도 기자들이 ‘절운’ 관련 입장을 묻자 “(전날) 결의문 채택 이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다 말했다”면서 답을 피했다.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게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거기다 떠밀리듯 ‘절운’을 선언한 상황이라, 장 대표는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그간 장 대표는 절운을 거부하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지지층의 입장과 가까운 행보를 보였는데, 당내 반대에 완전히 밀린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장 대표를 지지했던 극우 유튜버 전한 길씨는 곧바로 장 대표에게 ‘절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서예진 기자

## 우원식 “6·3 지선 때 개헌 투표하자”

(국회의장)

내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 발의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투표를 하자며, 이를 위해 내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며 “이를 위해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지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폭넓게 계속됐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연체율 오르는데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금융권 '딜레마'

금융위, 은행 공공성 확대 간담회  
생산적 금융 규모·속도 확대 유도  
중소 연체율 전년비 0.14%p 상승  
은행, 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나서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신사업 기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공공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6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금융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주제로 공식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의 생산적·포용 금융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뉴스1

올해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은행권을 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규모와 추진 속도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권은 최근 중소기업에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늘어나 건전성 지표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12월 기준 0.59%로 집

계됐다. 대기업은 0.12%이지만, 중소기업은 0.72%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년 전보다 0.14%포인트(p)오른 0.78%, 개인사업자 같은 기간 0.03%p 오른 0.63%를 기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도 꾸준히 줄어 들고 있다. 지난해 은행 전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비중은 79.8%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0% 선이 붕괴됐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

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이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업들의 성장성을 평가할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신한금융은 현재 금융권의 일반적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재무실적 등 과거 성과 중심의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술 기반 기업이나 신(新)산업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개발을 추진중이다.

재무·거래 정보 중심의 기존 데이터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 전통 금융 정보와 대안정보 등을 함께 활용해 사업성·시장 성장성·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재무 중심의 평가 방식만으로는 혁신 기업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은행들도 성장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GS건설 직원이 AI LAB을 활용하고 있다. /GS건설

## GS건설 자체개발 'AI랩' 도입 본격적 업무혁신 나서

GS건설이 자체AI를 개발하고 업무혁신 본격화에 나선다.

GS건설은 회사가 소유한 GPU를 활용한 자체AI툴인 'AI랩(LAB)' 개발에 성공해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자체 개발해 오픈한 AI랩이 기존 AI 툴과 달리 회사가 소유한 사내 GPU를 활용한다는 점이. 기술유출 등의 보안 걱정 없이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자체 보유한 GPU를 활용함으로써 직원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자체 GPU에 AI를 활용한 정보들이 축적돼 기술 내재화를 이루는 효과가 있다.

사내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대부분 문서를 활용한 점에 착안, 사내 지적 재산권이 있는 도면 같은 자료들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순화해 직원들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GS건설은 이번에 개발한 AI랩과 기존에 사용중인 외부 AI툴을 업무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통해 전 직원이 AI를 자유롭게 업무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 혁신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성미 기자

## 카카오뱅크 '한달적금' 누적계좌 1400만 돌파

카카오뱅크의 '한달적금'이 출시 2년 5개월 만에 누적 계좌 개설 수 1400만 좌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2023년 10월 출시한 '한달적금'은 100원부터 3만원까지 매일 소액을 저축하며 재미있게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단기 적금 상품이다.

31일이라는 짧은 만기로 끝까지 적금을 유지하기 쉽고, 납입할 때마다 '춘식이' 캐릭터가 31층 건물을 한 층씩 오르는 시각적 즐거움을 더해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인기에도 힘입어 '한달적금'은 출시 약 7개월 만에 500만 좌, 1년 5개월 만에 1000만 좌를 달성했으며, 이달 초 1400만 좌를 넘어서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저변도 확대됐다. 출시 초기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40대(31%)와 50대 이상(32%) 고객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성별로는 여성 고객이 72%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나유리 기자

# 삼성·국민 현금배당 '유지'... 하나·우리는 '확대'

카드사 7곳 배당정책 양극화  
신한, 총액 2385억 16.6% 줄어  
롯데, 배당액 387억 절반 수준  
현대, 배당성향 30%로 급감소

카드사 주주 배당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실적 둔화로 배당을 축소하며 보수적인 기조를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적 둔화에도 배당 확대에 나선 곳도 있다.

10일 각 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 가운데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현금배당을 축소했다.

먼저, 신한카드는 현금배당 총액(2025 회계연도 결산 기준)을 2385억

원으로 확정했다. 전년(2861억원)보다 16.6% 줄어든 규모다. 단, 배당성향은 50%를 유지했다. 이익이 줄었다는 의미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4767억원으로 전년(5721억원) 대비 16.7% 감소했다.

롯데카드도 배당금을 축소했다. 롯데카드는 총 배당액을 236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년(387억원) 보다 약 절반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단, 배당성향은 지난 2023년도 20.80%, 2024년도 28.60%, 2025년 29.0%다. 롯데카드 역시 순이익이 2024년 1353억원에서 814억원으로 약 40% 가량 감소했다.

손익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배당을 줄인 곳도 있다. 현대카드는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배당금을 줄였다. 현대

카드는 지난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503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1061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1544억원)보다 약 5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배당성향이 48.8%에서 30.0%로 자연스레 쪼그라들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 비율을 뜻한다.

한편, 실적 부진에도 배당을 유지하거나 확대한 곳도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현금배당 총액을 2988억원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64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순이익이 33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 줄어든 있음에도 2년만에 2000억 규모의 배당

을 재개한다. 자본 지표 및 연체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다. 배당성향은 60.6%로 카드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도 배당금을 확대했다. 하나카드는 배당금을 3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우리카드는 294억원에서 299억원으로 확대했다.

카드사마다 배당 정책이 다른 것은 건전성 지표와 자본 여건이 다르고, 이익을 내부에 유보해야 할 필요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정책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당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신규 투자 계획 여부에 따라 배당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KB국민은행, 취업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내달 27일 코엑스 A홀서 개최

KB국민은행은 오는 20일까지 '2026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는 'KB국민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오는 4월 27일 서울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다. KB금융그룹이 추천하는 우수기업과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이 참여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1년 출범한 KB굿잡 취업박람회



는 누적 방문객 수가 125만 명에 이르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다. 지난해까지 총 28회 개최됐으며, 약 6200여개 기업이 참가해 10만 5000여 건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4만 5000여 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며 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국내 대표 취업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KB굿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성미 기자 smahn1@

## 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1조3500억 지원

올해 투자 8500억, 인프라 5000억 공급

IBK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10조 원 참여 계획의 일환으로 2026년 첨단 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1조 3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해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총 1조 3500억원 중 기업투자 부문 8500억원, 인프라 부문 5000억원을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공급한다.

기업투자 부문에서는 은행권 최대 규모 수준인 8500억원을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모험자본으로 공급해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중소·벤처기업에는 모펀드 운

용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운용사를 통해 투자하고 스케일업·성숙기 기업에는 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운용사를 자체적으로 선별해 맞춤형 투자를 진행한다.

또한 전력, 수소, AI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국가 전략 산업 관련 인프라에 5000억원을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은 기업은행의 본연의 역할이자 강점 분야"라며 "기업은행이 발굴한 우량 사업을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추천해 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LGD, 흑자전환에도 부채 19조 '압력'... 체질개선 성과 시험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 2% 그쳐  
패널가격 등 업황 변동시 흑자 위태  
정철동 3년차... 성과 가시화 전망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업체들의 공세와 전방 수요 둔화 등 불확실한 업황속에서 지난해 흑자전환했지만 지속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업계가 공급경쟁 심화와 수요변동성 확대 등으로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어 수익성 회복과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과제를 올해 동시에 풀어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술통' 정철동 사장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질 개선 성과는 취임 3년차인 올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10월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5조 8101억원, 영업이익은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5606억원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지만 부채 축소와 현금창출력 회복 등 재무 체질 개선 필요성은 여전히 남

아있다는 평가다.

4분기 LG디스플레이의 부채 총계는 약 19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순차입금도 11조원에 달해 실제 기업의 재무 부담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따른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2%에 그쳐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4분기 실적에는 국내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등 인력 구

조 효율화 비용으로 900억원 이상이 반영됐다. 이 같은 일회성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적 반등이 본격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패널 가격 조정이 겹칠 경우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도 따른다. 더욱이 시장 최대 변수로 꼽히는 반도체 가격 상승도 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실적발표에서 "메모리 등 세트 부품 비용 상승에 따른 고객사의 패널 가격 인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수요 변동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영향도를 계속 체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현금을 창출했으나 설비투자 등으로 인한 자금 유출도 이어졌다. 회사의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조 3340억원을 기록했다.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 비용이 반영되며 영업활동에서 현금 유입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9790억원 유출로 나타났다. OLED 공장 투자와 관련 장비 도입 등이 이어지면서 설비투자에 따른 현금 지출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철동 사장은 지난 1월 CES에서 기술 중심 회사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 내부 성장동력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IT기기에 탑재되는 중소형 OLED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OLED 시장의 중심도 대형에서 중형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띠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IT용 OLED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는 현재 6세대 OLED 생산 설비 중심으로 중소형 패널을 생산하고 있어 급증하는 IT OLED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LCD에 이어 OLED 기술력도 추격해 오는 중국 BOE 또한 8.6세대용 IT OLED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재무 부담이 상존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쉽지 않은 점도 변수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업계는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기업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기아, '더 뉴 니로' 계약 개시... 2885만원 부터

복합연비 20.2km/L... 동급 최고수준  
정원정 부사장 "실용적 선택지 될 것"



기아 더 뉴 니로.

기아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성을 갖춘 경제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착한차'를 출시했다. 바로 친환경 SUV 니로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니로'다.

기아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에서 '더 뉴 니로'를 공개했다. 더 뉴 니로는 2022년 1월 출시한 2세대 니로를 기반으로 약 4년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동급 최고 수준의 복합 연비(20.2km/L·16인치 휠 기준)를 확보했다.

이날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 부사장은 "전 세계 누적 판매 120만대를 기록한 니로는 국내 하이브리드 SUV 최고 연비와 여유로운 실내 공간성을 갖춘 모델"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는 신형 니로에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시스템 최고 출력 141마력(ps), 최대토크 27.0kgf·m의 성능을 확보했다. 복합연비는 20.2km/L로 국내 하이브리드 SUV 중 가장 높은 연비를 자랑한다.

실내 공간은 2720mm의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동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해 장거리 이동에서도 쾌적한 주행경험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 했다. 주차 편의성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적용해 차량 주차와 출차의 부담을 낮췄다. 12.3인치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를 적용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편의성을 강화했다.

기아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기능을 적용해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차량 기능을 제어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차량 정차 상태에서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STAY 모드'도 추가됐다. 니로의 판매 가격(개별소비세 3.5% 적용)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기준으로 ▲트렌디 2885만 원 ▲프레스티지 3195만 원 ▲시그니처 3464만 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모비스, 벤츠 새시모듈 추가 공급

헝가리 신공장 본격 가동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모비스는 북미에 이어 유럽 지역 시장 공략을 위해 최근 벤츠와 새시 모듈 공급계약을 맺고 헝가리에 전용 생산 거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22년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통해 벤츠에 새시 모듈을 공급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유럽 지역에서도 같은 부품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헝가리 신공장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 차종용 새시 모듈을 공급하는 가운데 내연차 혼류 생산을 위한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계약 관례상 공급 금액과 대상 차종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새시 모듈이 많은 부품을 포함하고 벤츠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점을 고려하면 공급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헝가리 중부지역 케치케메트에 위치한 신공장의 부지는 축구장 7개 크기인 5만㎡ 규모다. 고객사로부터 생산 계획을 실시간으로 접수해 생산하는 '직서열'(Just In Sequence) 생산 방식이 채택됐다.

현대모비스는 헝가리 신공장을 유럽 내 4번째 생산거점이자 첫 글로벌 고객사 전용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유럽 생산거점은 체코, 슬로바키아, 터키 등 3곳으로 모두 그룹사인 현대차·기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폭스바겐에 배터리 시스템(BSA)을 공급하기 위한 스페인 공장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하면 현대모비스의 유럽 생산거점은 총 5곳으로 늘어난다.

현대모비스는 "2033년까지 글로벌 고객사 대상 매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북미, 유럽 등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선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신시장에서도 수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아파트 맞춤형 AI 솔루션 공급 확대

건설 B2B 시장 진출 가속화

LG전자가 아파트 맞춤형 AI 홈 솔루션 공급을 늘리며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성장을 가속화한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포스코이앤씨 주거 브랜드 '더샵'에 공급해 온 씽큐온이 누적 1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씽큐온은 생생형 AI가 탑재돼 고객과 일상 언어로 대화하며 맥락을 이해하고, 생활 패턴을 학습·예측한다. 덕분에 입주민은 LG전자 가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IoT 기기를 마치 대화하듯 음성으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LG전자가 AI 홈 플랫폼 '씽큐' 앱을 통해 제공 중인 아파트 특화 기능 '우리 단지 연결' 서비스의 적용 세대도 올해 1분기 기준 30만 세대를 넘어섰다. 이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신도시 전체 아파트 수를 상회하는 규모다.

아파트 특화 AI 홈 솔루션은 LG전자가 건설 B2B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다. LG전자는 건설사가 요구하는 고품질 빌트인 가전과 AI 홈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앞세워 B2B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LG전자 노범준 HS AI홈솔루션사업개발담당은 "LG전자만의 독보적인 가전 기술력에 AI 홈 플랫폼 '씽큐'와 허브 '씽큐 온'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앞세워 최적의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 B2B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LG이노텍,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 '리더십 A'

LG이노텍이 2025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3년 연속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 2만2100개 기업 중 3%에 불과한 766개 기업이 리더십 A를 받았고, 국내에서는 3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LG이노텍은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2040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들을 발 빠르게 실행 중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LG이노텍은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6 CDP 코리아 콘퍼런스'에서 '탄

소경영 섹터 아너스'도 받았다. LG이노텍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ESG(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문형수 LG이노텍 사장은 "피지컬 AI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전력 수요가 기후변화를 앞당기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ESG 리더십을 통해 차별적 고객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새벽배송 허용법안 두고 공방 격화 소상공인 “골목상권 사형선고” 반발

소상공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상권 보호·유통법 실효성 강화 요구  
김동아 “새벽배송 진압해 건전경쟁”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두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소형 수퍼마켓, 소규모 마트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 영업시간제한 등 규제를 받고 온라인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SSM은 족쇄가 풀리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쿠팡 사태’로 쿠팡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새벽배송 수요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벽배송’ 이슈가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 여당과 허용을 반대하는 거대 표밭인 소상공인업체간 팽팽한 살바싸움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쿠팡 보호법’으로 전락했다며 대형마트와 SSM에게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지원·허성무·양부남 등 민주당 의원 14명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동참했다.

소상공인업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공인

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인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지난 십수년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는 행위이며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에게 새벽배송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 꼬집었다.

이중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질적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앞서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지한 채 국내 유통사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은 이제 종료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새벽배송 시장에 본격 진입해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새벽배송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선 허용 조건에

서 ‘신선식품 제외’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놓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에선 신선식품이 새벽배송의 30~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제한적 허용은 ‘양금 빠진 찌뽕’이라며 볼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보도에 언급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이다.

소상공인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시행 15년이 지난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오프라인이 무한경쟁을 펼치고 ‘알테쉬’를 중심으로 중국 등 해외 플랫폼까지 왕성하게 진출하고 있는 유통업계 현실에서 소상공인 등 약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세단 감성에 SUV 실용성까지”



## 르노코리아 필랑트

날렵한 CUV 디자인, 넉넉한 실내 승차감·정숙성·조향감 등 강점 공인연비 웃도는 16.1km/L 기록

르노코리아 오로라 프로젝트 두 번째 모델인 필랑트는 파격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 첫 번째 모델인 그랑 콜레오스의 인기를 이어가겠다는 르노코리아의 의지가 느껴진다.

실제 필랑트는 사전 예약 7000대를 넘어서며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 4일 경주에서 진행된 필랑트 시승 행사 과정에서 사전 예약 고객이 수십 킬로미터를 쫓아와 차량의 승차감과 연비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

필랑트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세단과 SUV의 장점을 담아낸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의 감성을 담고 있다. 대형 SUV의 감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랑 콜레오스 대비 지상고는 10mm, 전고는 70mm 가량 낮췄다. 필랑트의 전장은 4915mm, 전폭은 1890mm로 그랑 콜레오스보다 각각 200mm, 10mm 길고 넓다. 이 때문에 대형 SUV의 몸집을 갖추고 있지만 날렵하다는 느낌이 강하다. 트렁크 용량은 633L로 동급 최고 수준을 확보했다.

차량에 탑승하면 오픈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운전석부터 동승석까지 이어지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동승석에 마련된 디스플레이는 동영상과 음악은 물론 레이싱 게임까지 다

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카메라 기반 증강현실(AR) 레이싱 게임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또 차량에 탑재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어시스턴트 에이닷 오토 음성 시스템은 주행 중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주행성능은 르노코리아가 강조했던 세단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저속과 고속 구간에서 불규칙 노면의 진동과 소음을 완벽하게 잡아냈다. 이는 노면 상황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 기술을 적용한 덕분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그랑 콜레오스에 진동을 감쇄하는 장치를 한개 적용했지만 필랑트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필랑트는 250마력의 최고 출력과 25.5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해 고속 구간에서도 빠르게 치고 나갔다. 와인딩 구간에서도 섬세한 조향감을 제공했다. 조그만 움직임에도 빠르게 반응했고 부드러운 핸들링은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고속도로나 국도에서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능을 활성화하면 차량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주행을 이어갔다.

연비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출발해 울주군까지 편도 약 70km 구간을 주행한 결과 공인 복합 연비(15.1km/L)를 훌쩍 뛰어 넘는 16.1km/L를 기록했다. 이는 도심 구간 운행 시 최대 75%까지 전기 모드로 주행을 이어가는 등 그랑 콜레오스보다 배터리 활용폭을 넓힌 결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르노 필랑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키오스크·서빙로봇 보급

정부가 음식점 등의 키오스크, 서빙로봇 설치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접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S/W형으로 구분한다.

/김승호 기자

## SK네트웍스, 자사주 2071만주 소각

발행주식 9.4% 규모... 1000억 웃돌아

SK네트웍스가 보유중이던 자기주식을 대규모로 소각하며 주주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SK네트웍스는 보유 중인 자사주 중 약 2071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발행주식 총수의 9.4%(2조 2000억주)이자 전일 종가 기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향후 핵심인재 채용 및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할 약 3%를 제외한 자사주 전부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키로 한 것이다.

SK네트웍스는 그동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AI 중심 사업모델 전환 및 재무구조 안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주 환원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1240만주, 145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했으며, 2024년 중간배당을 도입한 이래 사업 및

투자 성과에 따라 매년 주당 250원 이상의 배당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주주와의 대화’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힘써왔다.

SK네트웍스는 이번 자사주 소각 계획을 3월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중간배당 등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사회 중심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과 구성원,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주주 가치 희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주 친화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 10만평 규모 ‘식품종합클러스터’ 만든다

맑은물에, 괴산군과 투자협약 체결

식품전문기업 ‘맑은물’이 충북 괴산군과 ‘식품종합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맑은물에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회사는 총 3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산재한 맑은물에홀딩스 산하 8개 생산시설을 괴산군으로 이전해 공관련 식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약 10만평 규모의 ‘식품종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약 500명의 지역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괴산군은 맑은물에홀딩스의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석원 맑은물에홀딩스 대표(오른쪽)가 10일 송인현 괴산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맑은물에홀딩스

1994년 창업한 맑은물에홀딩스는 두부와 콩나물 등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갖춘 식품전문회사다.

자체브랜드 ‘맑은물’을 바탕으로 두부, 콩나물, 낫또 등 공관련 식품들을 온라인쇼핑몰과 흡소점에서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http://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vs 카카오 '카나나'... 공공서비스 경쟁

## 네이버 'AI 국민비서'

100여 종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AI 브리핑 기술로 즉시 답변 제공

## 카카오 '국민비서 구베'

카톡 대화창서 공공서비스 이용  
세이프가드 모델로 안정성 확보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공공서비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AI 국민비서'를 잇따라 공개하며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AI 경쟁에 나섰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AI 기반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용자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과 공공시설 예약 등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에이전트 형태의 AI 국민비서를 공개했다. 이용자는 네이버 앱 메인 '마이' 탭의 AI 국민비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건



##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

행정안전부 NAVER kakao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앞줄 오른쪽 네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100여 종 전자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 조화와 예약 기능도 제공한다.

전자증명서 발급 과정은 네이버 전자증명서와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을 연계해 구현했다.

이용자가 "등본 발급해줘"와 같은 요청을 입력하면 AI가 필요한 증명서를 안

내하고 발급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은행 등 사전에 등록된 제출처로 서류를 바로 전달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네이버는 AI 브리핑 기술을 활용해 증명서 종류 차이나 발급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질문하면 즉시 답변을 제공하고 안내 정보 출처도 함께 제시한다.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유누리'와 네이버 플레이스를 연계해 제공

하며 예약 이후 주변 음식점 추천 기능도 지원한다.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공식 채널 '국민비서 구베'를 통해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AI 국민비서는 자체 개발 AI

모델 '카나나'를 기반으로 구축했다.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카나나 세이프가드' 모델을 적용해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AI 에이전트 빌드'를 활용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AI 에이전트 형태로 구현했다.

이용자가 카카오톡 채팅창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줘"라고 입력하면 AI 국민비서가 인증 절차를 안내하고 전자증명서 발급까지 연결한다. "근처 공공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싶다"는 요청에는 공유누리 시스템과 연동해 검색과 예약을 한 번에 처리한다.

현재 두 서비스 모두 100여 종 전자증명서 발급과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 조화와 예약 기능을 지원한다.

양사는 향후 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네이버는 상반기 출시 예정인 통합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과 연계해 공공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KTX와 SRT 승차권 등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와 연계를 확대하고 음성 인터페이스 도입도 추진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LG CNS, 로봇 하드웨어 포트폴리오 확대

### 美 기업 텍스메이트에 전략적 투자 휠 기반 하체 구조... 산업현장 유리

LG CNS는 산업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로봇 기업 텍스메이트(Dexmate)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LG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이뤄졌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텍스메이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로봇 브레인 개발 기업들이 연구용 표준 하드웨어로 채택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텍스메이트의 로봇은 인간형 로봇의 작업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장시간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다리 대신 휠 기반 하체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로봇은 휠 기반 하체와 고속 작업에



LG CNS가 텍스메이트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트레이닝 시키는 모습을 시로 생성한 이미지. /LG CNS

특화된 양팔, 비전 센서를 탑재한 머리로 구성돼 있으며 36개 이상의 '자유도'를 기반으로 정밀한 양손 협동 작업이 가능하다. 양팔 기준 약 15kg의 적재 하중을 지원하며 한 번 충전으로 20시간 이상 작업할 수 있다.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대비 안정적인 하체 구조를 갖춰 물류센터와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 적용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LG CNS는 이번 투자로 이족보행 휴

머노이드와 사족보행 로봇에 이어 휠 기반 휴머노이드까지 확보하며 로봇 하드웨어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향후 하드웨어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운영·학습 플랫폼을 결합한 '폴스택 RX 서비스'를 기반으로 로봇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G CNS는 로봇 운영·학습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와 파트너십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로봇 브레인 개발 기업 스킵드AI에 투자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산업 맞춤형 RFM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물류·유통·제조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로봇 개념검증(PoC)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학습된 로봇이 물류센터와 제조공장에서 물건을 적재·분류하거나 선박 조립 상태와 품질을 검사하는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네이버 D2SF, 로봇 스타트업 2곳 투자

### 카멜레온·애니웨어 로보틱스

네이버 D2SF는 호텔 하우스키핑 로봇을 개발하는 카멜레온과 물류 자동화 로봇 기업 애니웨어 로보틱스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업 모두 자동화 수요가 높은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로봇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카멜레온은 복미 호텔 하우스키핑 업무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복미 호텔 산업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화장실 청소와 객실 정리 등 하우스키핑 업무는 작업 구조가 복잡해 상용화된 로봇 솔루션이 많지 않았다.

카멜레온은 네트워크 환경이나 호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어 현장 도입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

다. 카멜레온은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잠재 고객을 확보했으며 올해 2분기 화장실 청소 업무에 특화된 시제품을 개발해 현장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애니웨어 로보틱스는 물류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고강도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물류 산업에서는 트럭 하역 등 작업 강도가 높아 자동화 수요가 높지만 작업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로봇 도입이 쉽지 않았다.

애니웨어 로보틱스는 실제 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작업 속도와 수행 범위를 최적화했다. 단일 로봇이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 확장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현재 애니웨어 로보틱스는 글로벌 로봇 기업 파나와 물류 기업 새틀 크릭 등과 협업하며 현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검증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 과기부, 민·관 합작 'AI컴퓨팅 센터' 구축

### 우선협상대상자에 삼성SDS 컨소시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투자와 민간 자본을 결합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공모는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삼성SDS를 주

관기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삼성물산, 카카오, 삼성전자, 클리쉬, KT, 전라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계획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술·정책 평가를 진행했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출자와 대출 등 재원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는 금융 심사를 실시했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두 절차를 통과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사업 부지로 제안했

으며 2028년까지 첨단 AI 반도체(GPU 등) 약 1만5000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AI 연구개발과 서비스 지원, 국산 AI 반도체 활용 확대, 글로벌 기업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와 정책금융기관, 삼성SDS 컨소시엄은 SPC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 민관 권리·의무 관계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최종 출자 승인 절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확정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올해 3분기 착공해 2028년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LG U+, CDP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선정

### 2년 연속 포함... 최고등급 획득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환경정보공개 평가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약 2만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평가하는 글로벌 환경 평가 기관이다. 기업의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배출 관리 체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CDP 평가에서 국내 상위 5개 기업에만 수여되는 상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평가에서 최

고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하며 2년 연속 아너스 클럽에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 획득과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감축 목표의 신뢰성을 확보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KSSB) 기후 관련 공시 보고서를 2년 연속 발간하며 기후 변화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왔다.

회사는 향후 전력 사용량 절감과 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등 중장기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 서학개미, 美 상장 한국 3배 ETF에 몰린다...2억달러 베팅

## 해외주식 Click

강달러 기조에 환차익 가능성 기대  
국내 3배 ETF 없어 美증시 투자  
"위험성 커 신중한 투자" 당부

3대 직장인 김모씨는 미국에 상장된 한국 지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MSCI 사우스코리아 볼 3X 셰어즈(KORU)'에 금융자산의 절반을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구글 관련주를 모아놓은 ETF에 투자했다. 김씨는 "국내 증시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환차익과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돼 투자하게 됐다"고 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서학개미(해외 증시 투자자) 자금 일부가 한국 상품으로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 구멍 때문에 고수익을 원하는 서학 개미들이 점점 더 해외 초고위험 ETF로 몰려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ChatGPT로 생성한 '레버리지 상품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미지.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2주간(2월 24일~3월 9일) 서학개미들은 한국 주식시장 성과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코루(KORU, DIRECTION SHARES ETF TRUST DAILY MSCI SOUTH KOREA BULL.)'를

약 2억3990만달러 순매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규모다.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강달러 기조와 높은 레버리지 활용 매력이 부각되면서 해외 증시에서 국장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학개미들은 한국 증시를 1

배로 추종하는 'EWY(iShares MSCI South Korea ETF)'도 3846만달러 담았다.

국내에는 코스피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없는 만큼, 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미국 상장 상품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초고위험 ETF'의 경우 제도적으로 국내 출시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해외 주식 ETF의 경우 레버리지 배율 2배 이내만 출시할 수 있다. 또 '단일 종목 30% 비율 제한' 규정에 따라 채권 등 10개 이상의 기초 자산을 섞은 혼합형 상품만 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이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큰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로,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일일 재조정 효과로 인해 실제 지수보다 손실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한수 연구위원의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특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상위 50종목 보관액 대비 초고위험 ETF 보관액 비율은 2020년 1%에서 2021년 4%, 2022년 10%, 2023년 13%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12%다. 이 보고서는 초고위험 ETF를 3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관련 ETF로 집계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일 목표 배율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당일 수익률 방향과 같은 방향의 기계적 매매 압력이 반복될 수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도입되든지, 기초자산 시장 미시구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전 과정 살핀다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사전예방 투자자보호 중심 체질 개선  
주요 과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제시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업계 감독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서재만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내외 금

용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의 위험을 투자자 관점에서 충분히 평가하고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상품 기획과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해 불안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국민성장펀드와 BDC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조각투자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시장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

회사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해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들이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모험자본 투자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혁신기업과 성장 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에 대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감축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동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국민성장펀드 손실 금융사 임직원 면책

금융위, 첨단·벤처 투자 확대 유도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책 펀드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담을 줄여 금융권 자금을 첨단 산업과 벤처, 지역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 및 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 전략 산업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전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 역시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정윤 기자

## 이찬진 "중동발 변동성... 시장 안정 총력"

<금감원장>

신용거래 투자 위험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이 중동 정세 악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스위스 바젤 출장 중 현지에서 서울 본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전 부서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원내 '중동 상황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용거래 관련 투자 위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대매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증권업계가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 투자 현황도 모니터링한다.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주식 관련 인플루언서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리딩방을 통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 美배당 다우존스 ETF 순자산 3조 돌파

미래에셋증권, 연초이후 14.58% 성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3조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802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순자산 규모는 3조 379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규모 1위다.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

하는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배당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개인 순매수 금액은 연초 이후 2,572억원을 기록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 기업 펀더멘털과 에너지, 필수소비재 등 경기 방어 섹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연초 이후 14.58%의 성과를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 외국인근로자 ‘저임금 현실’ 10명 중 6명 월300만원 미만

데이터처, 이민자 체류실태 조사 결과 국내 체류외국인 169만명으로 증가 취업자 65.5%, 제조업 비중 44.9% 월 200만~300만원 구간이 절반 이직 희망 사유 낮은 임금이 최대 경제적 어려움 병행비 부담이 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60% 이상은 월평균 3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 ‘적은 보수’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8.4% 늘었다.

국내 체류외국인 중 남자 비중이 57.9%, 여자는 42.1%였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30.9%), 30대(27.5%), 40대(15.7%), 60세 이상(13.3%), 50대(12.6%)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65.5%는 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제조업(44.9%),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3.4%), 건설업(9.6%)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만~300만원’이 50.2%로 절반을 차지했다. ‘300만 원 이상’은 36.9%였다. ‘100만~200만원’은 9.0%, ‘100만 원 미만’은 3.8%로 조사됐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를 상대로 전반적



제주 서귀포시에서 감귤 수확 현장실습 중인 외국인 공공형 계절노동자들. /뉴시스

인 직장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68.7%, ‘보통’은 28.7%, ‘불만족’은 2.5%를 차지했다.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60.5%, 근로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62.4%, 작업장 청결 및 안전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68.2%였다.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10.8%였다. 이직희망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8.4%로 가장 많았고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가 22.0%로 그 뒤를 이었다.

‘임금이 낮아서’라는 응답은 전문인력(47.8%)과 재외동포(38.2%) 등 모든 체류 자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한 외국인은 12.9%였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생(22.0%)이 가장 많았고 방문취업(15.8%), 재외동포(14.2%) 순이었다.

어려움 유형으로는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함’(36.2%),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함’(29.4%),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 어려움’(25.0%) 순이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41만명)와 비전문취업(32만1000명) 비중이 컸다. 이어 유학생(23만6000명), 영주(16만3000명), 결혼이민(12만8000명), 전문인력(8만2000명), 방문취업(7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전문인력은 전년보다 25.3% 증가했지만 방문취업은 11.7%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적은 한국계중국(29.9%), 베트남(16.0%), 중국(8.1%)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15.0→16.0%)의 비중은 높아졌지만 한국계중국(31.6→29.9%)과 중국(8.6→8.1%)은 낮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농식품부, K-푸드+ 수출전략 점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부터 사흘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 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6년 ‘K-푸드

+’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K-푸드+는 농식품을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농정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재관 및 파견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진출기업 애로 사항의 선제적 해결’ 등을 당부·주문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성장 협력 강화

교섭 지원·불공정 거래 동시 점검

이러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력 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원·하청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평가 예방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 교섭 판단지원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사용자성 유권해석을 지원해 노사가 사전에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을 신속히 판단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연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청업체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나 안전 관련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 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합동 점검·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aT, 美서 K-푸드 3200만달러 수출상담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4개 K-푸드 기업 참가 지원 3일간 상담 270건·3200만달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2026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총 270건, 3200만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0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4~6일 사흘간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한 14개 우수 K-푸드 수출업체를 지원했다.

행사장 내 한국관에서는 스낵, 음료, 면류, 소스류,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참가 기업 제품을 집중 소개하고,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밥 시식과 함께 유자, 배, 수정과 등으로 만든 슬러시 음료 시음기회를 방문객에게 제공했다.

한국관을 방문한 한 현지 바이어의 소감도 전해졌다. 이 바이어는 “K-푸드는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한인 교포와 아시아계 소비자를 넘어 북미 주류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2026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설치된 한국관. /aT

고 평가했다.

특히 건강식품, 소스, 스낵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면서 향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올해로 45회째를 맞이한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에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3500개 이상의 식품기업이 참가했

다. 매년 6만 명 이상의 바이어와 식품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유기농, 자연식품 분야를 선도하는 미서부 최대 규모의 박람회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FBI)에 따르면 미국 식품서비스 시장은 2024년 1조 2000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 2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북미시장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주력 시장으로 주목받는다.

지난해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금액은 18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과자류(2억6357만 달러), 라면(2억5474만 달러), 쌀가공식품(1억 4902만 달러), 소스류(9213만 달러), 음료(9104만 달러)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aT의 전기한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K-푸드의 미국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체험 중심 마케팅과 콘텐츠 기반 홍보 전략을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이란·독일 학생미술교류전 서울 개최

폴리텍대, 서울 은하갤러리서 전시

한국·이란·독일 학생들이 그린 미래와 꿈을 담은 작품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국제 학생 미술교류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이란·독일 3개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이란·독일 학생미술교류전(One World, A Thousand Dreams)’이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은하갤러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세 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상상력으로 그려낸 미래의 모습을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는 지난해 10월

이란 테헤란에서 시작됐으며, 이번 서울 전시에 이어 오는 5월 독일 뮌헨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전시에는 폴리텍대학이 개최한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 19점도 함께 전시된다. ‘우주에서 피어나는 미래’, ‘세상을 앞서가는 코딩기술자’, ‘시간여행을 하는 역사학자’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바라본 미래와 꿈, 일상을 담은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세 나라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표현한 감정과 상상력을 한 공간에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 포항,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추진 속도... 산업구조 전환 박차

오천 광명산단에 40MW 1단계 조성 2조 투입, 2027년 상반기 준공 목표 인허가·전력공급 마무리, 공사 본격화 단계적 확장 통해 글로벌 AI거점 육성 철강도시 넘어 AI 혁신도시 전환 가속

포항시가 철강 중심 산업 구조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핵심 인프라인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는 네오AI클라우드사가 오천읍 광명산단단지 내 10만㎡ 부지에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40MW 규모로 약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포항시는 1단계 완공 이후에도 단계별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포항시의 행정 지원이 있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20여 개 기관과 부서,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TF팀'을 운영하며 인허가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조감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데이터센터 입지의 핵심 요소인 전력 공급 문제도 해결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계통 영향평가 기술평가를 완료했으며, 올해 2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조로 전력계통 영향평가비기술평가까지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한국전력간 전기사용 계약을 위한 사전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사업은 지난 1월 건축허가와 부지 계약을 마친 뒤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단계에 들어갔다. 철거 작업은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345kV 무중단 변전소와 인접해 있어 200MW 이상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향후 단계별 확장을 통해 이 지역을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포항은 인공지능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경북의 전력자립률은 2024년 기준 215.6%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포항은 풍부한 전력을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계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철강·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전략 산업이 밀집해 있어 AI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 기관이 집적된 과학 연구 클러스터와 포스텍, 한동대 등 교육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연구 역량과 인재 기반 역시 탄탄하다는 평가다.

포항시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기로 철강 중심 도시에서 AI 혁신도시로의 산업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센터가 가동되면 제조와 연구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AX가 가속화되고 GPU, 서버, AI 솔루션 기업 등 관련 산업 생태계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가 포항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연구·제조 인프라와 인재를 기반으로 포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so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

#### 기후테크기업 42개사 금융지원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후신기술 육성과 2050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참여기업 42개사, 운전자금 200억원 금융비용 지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탄소저감제품 생산에 따른 탄소감축 예상량은 사업 시행 이후인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7435t CO2eq(이산화탄소환산량)이다. 이는 30년 생 잣나무 약 374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부산 소재 기후테크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기후신기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거창군

#### 지역활력타운 본격 착공

거창군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은퇴자 유치를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 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92억원이 투입된다. 2023년 6월 '지식IN 거창 아로리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공모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며 거창읍 정장리 일원 총면적 4만 8817㎡ 부지에 조성된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 경북도, 지역필수의사 20명 확보

###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 지원

경북도가 보건복지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으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 2.1명(수도권 3.5명)에 못미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 민간거점 병원인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등 8개 의료기관에 계약형 지역의사 2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53억



경북도는 2014년부터 올 10월말까지 신청사를 방문한 방문객은 총 70만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신청사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2000여명이다.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필수의사가 계약만료 후에도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son@

## 나주시, 출생지표 3년 연속 상승

임신부 등록 843명, 역대 최대 기록

전남 나주시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임신부 등록수가 모두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며 출생 친화 도시로서의 인구 활력 회복 신호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1.17을 기록하며 20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1.17로 전국 평균 0.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27 → 2023년 1.086 → 2024년 1.16 → 2025년 1.17로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

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지역의 출산 환경과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구 지표다.

나주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라남도 시(市) 단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도내 시(市) 단위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증가와 함께 실제 출생아 수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 출생아 수는 2022년 680명에서 2023년 735명, 2024년 788명, 2025년 791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임신부 등록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2025년에는 역대 최대인 843명을 기록해 향후 출생아 수 증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인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 창원특례시, 대규모 기후·환경 지원 추진

탄소중립포인트·전기차 보급 추진

창원특례시가 2026년 시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기후·환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창원시는 전기자동차 551대와 노후차 조기 폐차 3892대 지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전기차 보급·노후차 조기 폐차·슬레이트 처리 지원·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소규모 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망라됐다.

시민 참여형 사업인 탄소중립포인트

제는 에너지와 자동차 두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에너지 분야는 전기·수도·가스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자동차 분야는 4835대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 시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포항초·물곰으로 동해안 미식 매력 알린다

### 경북문화관광공사

METI 테마로 제철 식재료 소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3월 '경북 미식 여행 METI(Monthly Eating Travel Initiative)' 테마로 경북 동해안의 제철 식재료인 포항초와 물곰을 소개하는 미식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겨울 해풍과 거친 동해 바다에서 길러진 식재료를 통해 경북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식문화를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한 바람과 파도를 견디며 자라난 재료가 지

역의 음식과 이야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아 동해안 식문화의 특징을 풀어냈다. 포항초는 해풍을 맞고 자라 있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시금치로, 모래와 염분이 섞인 토양에서 재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시금치와 달리 옆으로 퍼지듯 자라며 뿌리는 붉은빛을 띤다. 포항 지역은 전국 시금치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겨울 시금치 산지로, 포항초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3월 사이 가장 맛이 오른다.

동해안 별미로 알려진 물곰도 함께 소개됐다. /경북=김진곤 기자

### 전라남도

#### 생활체육대회 17개 선정

전라남도는 민간 생활체육 분야 지원사업 공모로 전국 규모 골프대회와 마라톤 등 생활체육대회 17개를 선정, 총 2억 6천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 저변 확대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전국 규모 골프대회와 마라톤 등 생활체육대회, 기타 민간 생활체육대회 등 3개 분야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 검토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회를 확정했다. 선정된 대회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드림투어, 전국 아마추어골프대추전 등 골프대회 6개 등 마라톤대회 4개 등 기타 생활체육대회 7개로 약 1만 9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r6313@

# 원가 오르는데 상품가격 인하해야... 식품·유통업계, 사면초가

중동전쟁으로 경영 불확실성 커져 정부 물가안정 기조도 발 맞춰야 업계 "비용절감 등 대응 전략 고심"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등 식품·유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 가능성과 가격 인하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현재 식품·유통업계는 아직 상품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비용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단기적으로 공급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상품 상당수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며 국내 도착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데다, 냉동·건식·가공식품처럼 보관 기간이 긴 제품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도 현재 재고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

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공급망과 비용 구조에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조달한 원료가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가공된 뒤 다시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구조가 많아 간접적인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유가 상승 민감한 식품업계  
식품업계는 대두, 소맥, 옥수수, 전분

등 주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운송비 상승이 곧바로 원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라면과 과자 포장재에 쓰이는 나프타 역시 유가와 연동되는 만큼 포장재 가격 상승 가능성도 거론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고유가는 물류비 뿐 아니라 원재료비와 공장 가동비 등 여러 비용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연초 사업

계획은 일정 수준의 유가를 가정해 세우는데, 배럴당 100달러 돌파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대외 변수로 원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은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가격 인하를 계기로 제빵업계가 빵과 케이크 가격을 낮춘 데 이어 라면과 제과 제품까지 가격 인하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주요 라면업체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라면·제과업체들은 내부적으로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원가 구조상 가격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밀가루 원가 비중은 10~30% 미만 수준"이라며 "유가와 환율이 오르면 전체 원가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과업계 관계자 역시 공장 가동비와 물류비, 인건비가 더 큰 원가 요소라고 설

명했다.

◆초저가 생활용품 경쟁 확산

한편 정책 기조에 맞춰 유통 현장에서 초저가 생활용품 경쟁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생활용품 업체 깨끗한나라와 협업체 개당 약 181원 수준의 순면커버 생리대를 출시했다. 중형 16개입 기준 가격은 2900원으로 일반 편의점 상품 대비 가격을 크게 낮춘 수준이다.

초저가 생리대는 올해 초 정부가 생활필수품 가격 문제를 언급한 이후 유통업체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커머스과 대형마트에서도 100원 안팎의 초저가 제품이 등장했고, 편의점 업계 역시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가격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 변수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 요구까지 겹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전반이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마트, 인니 하이브리드 매장 확대

도매·소매 기능 결합 통해 현지 최적화 마타람점, 리뉴얼 오픈 이후 매출 급증



인도네시아 마타람점 신선식품 코너에서 장보는 고객들.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 마타람점을 도매와 소매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매장'으로 재단장한 뒤 매출과 고객 수가 크게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현지 유통 구조와 소비 패턴을 반영한 매장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인도네시아 톰복섬 마타람점 리뉴얼 오픈 이후 한 달간 누적 매출이 리뉴얼 이전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고, 고객 수는 약 4배 늘었다.

인도네시아는 1만2000여 개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상 물류 인프라가 제한돼 소규모 소매상 중심의 도매 유통 구조가 발달해 있다. 기존 도매 매장은 호텔·레스토랑·카페(HORECA)사업자와 소매상을 대상으로 대용량 상품 위주로 운영돼 일반 소비자에게는 선택 폭이 좁다는 한계가 있었다.

롯데마트는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도매 매장에 일반 소비자를 위한 소매 콘텐츠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매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첫 도입한 발리점은 올해 2월까지

명이 해당 공간을 이용할 정도로 반응이 높았다.

요리하다 키친에서는 김밥, 떡볶이, 닭강정 등 약 100여 종의 K푸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리뉴얼 이후 즉석식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배 증가했다.

신선식품 중심의 매장 재구성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마타람점이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도매 매장 가운데 신선식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냉장·냉동과 신선식품 진열 면적을 70% 확대했다. 그 결과 소매 부문 매출과 방문객은 각각 159%, 289% 증가했다.

도매 고객을 위한 전용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전율이 높은 핵심 상품 위주로 구성해 사업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윌스톱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차우철 롯데마트·슈퍼대표는 "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을 통해 소매 강화형 하이브리드 매장이 현지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발리점과 마타람점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판매량 급증

런치플레이션 지속... 가성비 메뉴 주목

점심식사 가격이 1만원을 훌쩍 넘는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직장인의 가성비 점심 메뉴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올해 1~2월 을지로, 삼성, 역삼 등 서울 주요 오피스 상권에 위치한 노브랜드 버거 5개 매장의 점심시간 버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매장의 점심시간 버거 판매량 증가율(5%) 대비 2배 높은 수치로, 점심값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의 합리적인 외식 선택지로 노브랜드 버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오피스 상권 매장을 찾는 점심 고객의 소비 패턴도 가성비 메뉴 중심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상권 점심 고객의 72%가 세트 기준 7000원 이하 메뉴를 선

택했으며, 이 가운데 약 34%는 '어메이징 더블 세트'를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메이징 더블'은 업계 더블 패티 버거 대비 고기 중량을 약 30% 늘리면서도, 가격은 약 30% 낮은 노브랜드 버거 대표 가성비 메뉴다. 가격은 단품 4500원, 세트 6400원으로 가격 대비 포만감이 높아 점심값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한 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어메이징 더블'은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50만개를 돌파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월 판매량이 20만개를 넘어섰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점심값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성비 있는 한 끼로 노브랜드 버거를 찾는 직장인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메뉴와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국내 대표 가성비 버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 롯데웰푸드, '롯데 파스퇴르 순우유맛' 선포

롯데웰푸드의 대표 샌드 브랜드 '롯데(롯데샌드)'이 프리미엄 우유 파스퇴르를 만났다.

롯데웰푸드는 파스퇴르 우유를 사용한 '롯데 파스퇴르 순우유맛(사진)'을 선보였다. 어울리는 맛을 조합해 먹는 '페어링(Pairing)' 미식 트렌드를 공략하는 신제품으로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한 순우유맛 샌드 디저트다.

롯데 파스퇴르 순우유맛은 저온살균 공법을 적용한 파스퇴르 우유를 크림과 비스킷에 모두 넣은 것이 특징이다. 고소하고 진한 우유 풍미의 크림과 부드럽게



녹아드는 비스킷의 조화가 일품이다.

롯데웰푸드는 이번 신제품 론칭을 기념하여 구매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패키지에 삽입된 QR코드 통해 응모 가능하며 아이패드 프로, 애플워치, 롯데호텔 라세스 디너 식사권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 남양유업, 카자흐스탄 음료시장 진출

'테이크핏·프렌치카페' 수출

남양유업이 단백질 음료 '테이크핏'과 컵커피 '프렌치카페 로스터리'를 카자흐스탄 편의점 CU에 수출하며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남양유업 단백질 음료와

RTD(Ready-to-Drink) 커피 제품의 중앙아시아 첫 진출로, 현지 편의점 유통망을 기반으로 K-단백질 음료와 K-커피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수출 제품은 '테이크핏 몬스터' 2종과 '테이크핏 맥스' 3종, 컵커피 '프렌치카페' 3종이다.

남양유업은 이번 카자흐스탄 진출로 단백질 음료 수출 시장을 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하게 됐다.

서성현 남양유업 글로벌사업팀장은 "카자흐스탄은 젊은 인구 비중과 소비 성장성이 높은 신흥 시장"이라며 "테이크핏과 프렌치카페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셀트리온, 오세아니아 직판 전략 통했다... 압도적 처방 성과

허쥬마, 호주 시장 점유율 56%  
램시마SC, 연평균 80% 성장률  
현지 맞춤 영업·마케팅 전략 효과



셀트리온 '허쥬마'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직접판매 효과가 아시아에 이어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항암제 및 자가면역질환 제품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점유율 확대를 지속하며 오세아니아 지역 내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유방암 및 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허쥬마'가 호주에서 56%의 시장 점유율로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처방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호주에서는 오리지널을 포함한 총 6종의 트라스투주맙 제품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허쥬마가 다른 모든 제품들의 합

산 점유율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했다. 자가면역질환 제품군에서도 처방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 제품인 '램시마'와 '램시마SC'(피하주사제형)는 호주에서 58%의 합산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램시마SC의 경우 지난 2021년 호주에 출시된 이후 2022년 5% 수준이던 점유율이 3년 만인 지난해 3분기 29%까지 증가해 연평균 약 80%의 성

장률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성과가 호주 제약 시장 특성을 고려한 현지 법인의 맞춤형 영업·마케팅 전략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호주 법인은 현지 학회 참가 및 의료진 대상 세미나 참가, 신규 임상 데이터 홍보, 주요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등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제품 인지도와 처방 선호도를 높여왔다. 또한, 주요 병원 및 조제 인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호주의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도 처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호주에서는 환자에게 특정 오리지널 의약품을 최초 처방할 경우, 의사가 의약품급여제도(PBS)에 별도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간소화된 처방 코드를 활용해 승인 절차가 신속하다. 뉴질랜드에서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

진다. '허쥬마'는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뉴질랜드 트라스투주맙 시장을 선점했고, '베그젤마'도 81%의 점유율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측은 뉴질랜드 법인이 정부입찰 기관(파막)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어온 결과, 입찰 수주를 지속적으로 성공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 스테키마 등 기존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에 더해 향후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등 고수익 신규 제품을 순차 출시해 마케팅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김지태 남부아시아 담당장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주요 제품 모두 안정적인 처방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오세아니아 시장 내 셀트리온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현지 의약품 시장 특성과 제도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영업 전략과 더불어,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환자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의 직판 전략은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IQVIA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램시마는 싱가포르 93%, 홍콩 77%, 태국 73%, 말레이시아 6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 1위를 유지했다. 유플라이마 역시 싱가포르에서 오리지널 제품을 제치고 점유율 2위 자리에 오르는 등 처방 성장세가 지속됐다. 항암제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는 2025년 3분기 기준 태국에서 87%, 홍콩 57%, 말레이시아 51%의 점유율로 뚜렷한 처방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도 싱가포르 90%, 태국 79%의 점유율로 처방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국내는 좁다... 올리브영 페스타, 글로벌 개최

K-뷰티 경험 가능한 월드투어 형태  
5월 일본 지바현, 8월 로스앤젤레스



지난 2025년 5월 서울 노들섬에서 열린 '2025 올리브영 페스타' 현장 전경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은 올해 일본과 미국 글로벌 주요 거점에서 '올리브영 페스타 2026'을 순차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리브영 페스타는 올리브영의 상품 큐레이션과 트렌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브랜드가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과 경쟁력을 소개하는 체험형 행사다. 이번에는 기존 행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K뷰티를 집약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월드투어 형태로 확장됐다. K뷰티의 면면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구성 속에서 브랜드 철학을 알리며 현지 팬덤을 형성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K뷰티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고객층을 고려해 K뷰티 루틴과 노하우, 상품 경쟁력을 쉽고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요소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 현지 인플루언서, 브랜드 사, 뷰티 산업 관계자들이 교류하는 실질적 비즈니스 공간도 마련한다. 월드투어의 첫 포문은 '올리브영 페스타 재팬 2026'으로, 오는 5월 일본 지

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되는 'K 콘 재팬 2026' 현장에서 진행된다. 8월에는 글로벌 뷰티와 문화가 교차하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이 이어진다.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의 경우, 올리브영만의 차별화된 큐레이션과 브랜드 스토리를 한눈에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둔다. 수백 개 브랜드를 한 자리에 모은 대규모 쇼케이스로 꾸며진다. 올리브영 특유의 스토어도 생생하게 구현

한다. 올리브영은 페스타 월드투어를 통해 K뷰티 브랜드 하나 하나의 가치를 현지 소비자들에게 각인하는 'K뷰티 앰배서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헬시 뷰티 플레이그라운드(건강한 뷰티 놀이터)'를 주제로 전 세계 Z세대가 브랜드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기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 "스킨 롱제비티, 30분내 손상 피부 복구"

LG생건, NAD 회복 효과 입증  
LG생활건강이 개발한 스킨 롱제비티(피부 장수) 핵심 성분 'NAD Power 24™'의 피부 회복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LG생활건강은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두리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NAD Power 24™의 작용 메커니즘을 피부 세포 수준에서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세포 호흡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핵심 조효소인 NAD는 구조가 불안정한 편이다. LG생활건강의 독자 성분인 NAD Power 24™ NAD를 리포좀(구형 이중막 구조) 형태로 안정시키고, 흡

수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먼저 피부 진피를 구성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는 '진피 섬유아세포'를 의도적으로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한 다음 NAD Power 24™를 투여했다. 그 결과 잘게 분리됐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생존에 필수인 여러 단백질을 합성·가공하는 '소포체'와 '골지체'의 구조도 정상적으로 복구됐다. 특히 이 같은 회복 효과는 단 30분만에 나타났다. 또 세포 손상 발생 전에 NAD Power 24™를 미리 처리했을 경우, 손상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확인했다. /이세경 기자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 위치한 타나베파마코리아 여의도 사무실에서 HK이노엔과 타나베파마코리아 임직원들이 '바다냄정' 공동 프로모션 계약식 진행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K이노엔

## 애경산업, 美서 선보인 '시그닉' 국내 론칭

'젤리 베어 스토어' 팝업 운영  
애경산업이 지난 9월 미국에서 먼저 론칭한 스킨케어 브랜드 '시그닉'(signature)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애경산업은 오는 11~15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무신사 뷰티스페이스에서 '젤리 베어 스토어'(JELLY BEAR STORE) 오프라인 팝업을 운영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시그닉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시그닉의 젤리 베어 스토어는 피부 탄력 케어에 중점을 둔 '시그닉 플럼핑

펩타이드 라인'의 제품력이 시각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젤리 콘셉트를 적용했으며, 브랜드의 트레이드마크인 젤리 베어와 함께 탱탱한 제품의 제형을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시그닉은 젤리 베어 스토어 운영과 함께 피부 핵심 탄력을 강화해 주는 '플럼핑 펩타이드' 성분과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보호해 주는 '진저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해 탄력 있는 피부를 완성해 주는 스킨케어 4종을 무신사 온라인에 선보인다. ▲피부 탄력을 빠르게 케

어하는 '바운스 업 크림' ▲주름과 탄력을 한번에 관리하는 '더블 이펙트 세럼' ▲매끈한 피부 결을 완성해 주는 '포어 리뉴 패드' ▲피부 윤곽을 잡아 주는 '인스턴트 플럼핑 마스크' 등으로 구성됐다. 시그닉은 미국 현지에서 틱톡 친화적인 비주얼과 소비자 취향에 맞는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매출은 직전 동기간 대비 약 376% 성장한데 이어 틱톡 콘텐츠는 누적 조회수 1600만회를 돌파하는 등 현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세경 기자

## HK이노엔, 빈혈 신약 국내 독점 유통

타나베파마코리아와 공동 프로모션  
HK이노엔은 타나베파마코리아와 신성 빈혈 치료 신약 '바다냄정(성분명: 바다스스타트)'의 국내 공동 프로모션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바다냄정의 국내 공동 영업 및 마케팅을 진행한다. 100병상 초과 의료기관은 양사가 함께 담당하며,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HK이노엔이 전담한다. 또한 HK이노엔은 신장질환 제품 판매 경험과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바다냄정을 국내에 독점 유통한다. 이를 통해 만성 신

장질환 환자 치료 영역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바다냄정은 저산소유도인자 프롤린 수산화효소(HIF-PH) 억제제 계열 신약이다.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에 쓰인다. 용량은 150mg과 300mg 두 가지이며 경구용 치료제로 처방당 1일 1회 복용한다. HK이노엔은 투석지연제 '크레메진(구형흡착탄)', 주사형 신성 빈혈 치료제 '에포카인(EPO)' 등 신장질환 관련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냄정을 추가하며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정하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3월 9일(월) 장소 : 한국여성경제인협

**한경협-KEP,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맞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KEP)와 손잡고 여성기업 판로 확대에 나선다. 여경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분회에서 KEP와 여성기업 공공조달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왼쪽)이 박대전 KEP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LG디스플레이,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10년연속 선정**

LG디스플레이는 2025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10년 연속 IT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온실가스 감축·관리 노력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고도화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확대 등 주요 부문에서 평가 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받아 10년 연속 선정 기록을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



6:30 장소 : 한국사회투자협회 20층 대회의실

**유한재단-사회투자협회, 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유한재단은 지난 9일 한국사회투자협회와 '돌봄청소년 및 청년 대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사회투자협회 20층 대회의실에서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왼쪽)과 김현준 한국사회투자협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유한재단



**오비맥주, '세계 물의 날' 기념 수자원 보호 활동**

오비맥주는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지난 9일 광주 생산공장 인근 영산강에서 하천 정화와 공장 내 나무심기 등 수자원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영산강 일대 하천 정화 활동은 민·관이 함께한 합동 행사로 열렸다. 오비맥주 박재연 광주공장장 등 임직원 30여 명과 광주 북구 환경생태국 기후환경과 및 한국환경보전원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해 하천 인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오비맥주



**iM금융그룹, 봉사단·대학생홍보대사 통합 출범**

iM금융그룹은 'iM동행봉사단'과 'iM대학생홍보대사'의 올해 활동을 시작하는 '2026 iM봉사단 통합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는 임직원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iM동행봉사단', 전국 대학생 70명으로 구성된 'iM대학생홍보대사'의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iM금융그룹

# 삼성전자, GDC2026서 게이밍모니터 플레이 경험 제공

오는 13일 美 샌프란시스코서 열려 2026년형 오디세이 신제품 소개 3D·HDR 화질 제공 확대 예정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혁신적인 게이밍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1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GDC 페스티벌 오브 게이밍 2026(이하 GDC)'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GDC 개최에 맞춰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 별도의 행사장을 마련하고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 ▲게이밍 모니터 최초 6K 초고해상도 32형 '오디세이 G8' ▲세계 최초 듀얼 모드 기반으로 최대 1040Hz 주사율을 구현한 '오디세이 G6' 등 2026년형 오디세이 신제품을 소개한다.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인 '오디세이



삼성전자 모델이 'GDC 페스티벌 오브 게이밍 2026'에서 삼성전자 행사장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 3D'는 3월 중 전세계 게이머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게임인 '헬 이즈 어스'를 3D 모드로 지원한다.

헬 이즈 어스는 로그 팩터에서 개발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특유의 역동적인 액션이 3D 기술과 만나 더욱 실감나는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또 올해 말까지 서바이벌 호러 게임 '크로노스: 더 뉴 던'을 포함해 3D 모드 지원 게임을 120개 이상으로 확

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퍼스트 버서커: 카잔 ▲스텔라 블레이드 ▲P의 거짓: 서곡 ▲몬길: STAR DIVE 등 60여 종의 게임을 '오디세이 3D'로 지원하고 있다.

'오디세이 3D'는 별도 안경 없이도 시선 추적과 화면 맵핑 기술을 통해 게이머의 시선에 맞춰 실시간으로 화면 깊이와 입체감을 조정해 몰입도 높은 3D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게이밍 모니터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게임 제작사와 손잡고 'HDR10+ GAMING' 기술도 확대 도입한다.

'HDR10+ GAMING'은 게임 콘텐츠의 장면 및 프레임 분석해 입체감을 높여 게이밍에 최적화된 HDR 화질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레드 데드 리뎀 2 ▲사이버펄크 2077 ▲배틀필드 6와 F1 25 등 총 14종의 게임 ▲언리얼 엔진 ▲프로스트바이트 등 총 5종의 개발 플랫폼에 'HDR10+ GAMING'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특히 3월에 출시하는 펄어비스의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 사막'에도 'HDR10+ GAMING'을 도입해 게이머들에게 한층 더 실감나는 HDR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삼성전기, CDP '플래티넘 클럽' 선정 현대로템, 'iF 디자인 어워드' 2관왕 쾌거

**기후변화부문 최고등급**

삼성전기가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으로부터 ESG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삼성전기는 CDP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CDP 코리아 어워드'에서 기후변화부문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클럽'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CDP는 전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기후변화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감축노력 등을 매년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관이며, CDP 평가결과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 FTSE 4Good 지수 등과 함께 가장 신뢰도 높은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플래티넘 클럽은 명예의 전당을 4



삼성전기가 기후변화부문 플래티넘클럽을 수상받고 있다. (왼쪽부터)CDP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 삼성전기 최종민 상무, CDP 호세 오르도네스 APAC 총괄대표. /삼성전기

년 이상 유지해야 선정되는 최상급의 등급으로 명예의 전당은 CDP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은 상위 5개 기업만이 오를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삼성전기를 포함한 5개 기업이 플래티넘 클럽으로 선정됐다.

/차현정 기자

**철도분야 수소모빌리티 확대 전략**

현대로템은 10일 자사의 수소전기동력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IDEA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올해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출품된 1만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됐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23년 수소전기트램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으며 국내 철도업계 최초로 글로벌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소전기동력차와 수소전기동차

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수소 모빌리티다. 각각 기존의 동력차와 전동차에 대응하는 철도차량으로, 대전·울산 등에서 운영을 앞둔 수소전기트램에 이어 향후 철도 분야 수소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이끌 전략 모델로 꼽힌다.

특히 이번 수상작에는 향후 현대로템 수소 모빌리티를 대표할 디자인 요소인 'H' 형태의 측면 그래픽이 처음 적용됐다. 현대로템과 수소(Hydrogen)를 상징하는 H 형상에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격자무늬 그래픽을 더해 수소 모빌리티 확산 비전을 담았다.

수소전기동력차는 강력한 동력 성능에 어울리는 인상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대우건설, 현장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맞손'**

대우건설은 지난 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서울 중구 본사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면 근무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제도다. 근태 관리 자동화와 퇴직공제금의 투명한 관리, 근로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도입했다. 대우건설은 이미 자체 전자출입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정보를 관리해 왔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면서 현장 출입 인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현장 운영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권혁태 전무이사(이사장 직무대행, 왼쪽)와 대우건설 신동혁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우건설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9개 현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사업장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전 현장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대우건설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출퇴근 정보 제공과 시스템 연계를 지원하고, 협력을 대상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코웨이, 장애인 체육 진흥 공로 인정받아

**'코웨이 블루휠스' 운영**

코웨이가 휠체어농구단 '코웨이 블루휠스' 운영을 통한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종목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0일 코웨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2년 국내 휠체어농구 실업팀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휠체어농구팀 '코웨이 블루휠스'를 창단했다. 이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운동용품, 훈련시설,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선수들의 훈련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 장애인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이같은 지원을 기반으로 코웨이 블루휠스는 각종 대회와 리그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며 국내 최정상급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대한체육회** ◇ 전보 ▲ 체육진흥본부장 심상보 ▲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장 안용혁 ▲ 선수지도지원부장 김성하 ▲ 생활체육부장 박정호 ▲ 스포츠클럽부장 김경미 ▲ 청소년체육부장 소형석 ▲ 교육기획부장 황병춘

**부음**

▲ 황대식(창원상공회의소 감사·대우회계법인 대표회계사·향년 76세)씨 별세, 서미옥(메디치회 회장)씨 남편상 = 9일,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진전면 서포리 선영. 055-270-1900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2

## Always

###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송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티켓링크 | 문의 02-332-4902

# 열린 플랫폼, 닫힌 예술



홍경안 역  
시시일각

예술의 권위는 전통적으로 전문적 훈련과 정제된 언어를 바탕으로 한 비평적 판단을 통해 이뤄졌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구별짓기』(1979)에서 체계적으로 논증했듯, 예술적 취향이란 계급적 아비투스(Habitus)의 투영이며, 비평은 그 취향에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문화 권력의 위계를 재생산하는 핵심 기제였다.

그러나 동시대 예술 생태계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헤시태그와 알고리즘이라는 직관적 체계가 비평적 담론을 대체함은 물론,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짧은 글과 숏폼 콘텐츠, 그리고 '시각적 쾌락'에 기반한 즉각적 공유 가능성은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형시켰다.

오늘날의 관객에게 작품을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수동적으로 침잠하는 행위라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서사적 참여'에 가깝

다. 예술가들 역시 완성된 결과물보다 제작 과정의 공유와 실시간 소통을 우선시하며, 창작과 수용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미술관과 갤러리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공립미술관의 전시홍보자료에 조회수를 적시하고 성과 지표로 활용한다. 전시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 또한 주요 미술 저널 및 신문 칼럼의 비평적 판단이 아니라, 플랫폼 다수가 생성하는 '좋아요'와 인증샷의 누적량, 화제성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전환은 예술가치의 준거 자체가 내재적 미학 논리에서 '가시성의 경제'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부각은 표면적으로 민주화의 외양을 띤다. 언뜻 보면 예술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특유의 개방성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종류의 게이트키퍼를 낳는다. 그건 참여율과 팔로워 수가 창작자의 위계를 결정하거나 알고리즘의 비가시적 논리가 노출의 구조를 편향시키는 것, 그리고 철저히 파편화되는 예술 경험이다. 자유로운 접근성이 오히려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셈이다.

특히 '가시성의 편향' 문제는 예술 경험의 본질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알

고리즘이 제공하는 피드는 이용자의 과거 반응을 학습해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한다.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다.

예술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가 낯섬을 통한 자기 확장, 즉 자신의 감수성 경계 너머로 나아가는 탈경계적 경험이라면, 알고리즘 큐레이션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유사한 것만을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함으로써 예술 경험은 축소되거나 폐쇄로 나아가간다.

이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태도만으로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미술관과 갤러리가 조회수 대신 깊이 있는 감상의 조건을 설계하고, 플랫폼 바깥에서 작동하는 비평과 담론의 장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동시에 수용자의 의식적 재구성도 필요하다. 알고리즘이 설계한 흐름에 수동적으로 올라타는 대신, 느리고 불편하지만 깊은 사유를 요구하는 예술을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 조회수가 아닌 자신의 감각으로 작품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환경 속에서 반응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예술 경험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다.

/미술평론가

# K-제약, 낡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들



기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제네릭 약의약품에 대한 약가 산정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고, 업계는 산업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약가 관련 사안은 사실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제약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제약협회는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이 수십 년간 철폐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혁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였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글로벌 데이터에서 미국 기업의 혁신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은 2015년 46%에서 2025년 33%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4%에서 30%까지 급증했다. 10년 전만 해도 42%포인트에 달했던 양국 격차는 이제 3%포인트 수준까지 좁혀졌다.

임상시험 속도도 중국이 앞선다. 단일 국가 기준 임상 1상과 2상은 미국보다 평균 50% 가까이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도 훨씬 낮다. 한때 '복제약 국가'로 불리던 중국이 주요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국내 제약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적으로만 살펴봐도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제약 업계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책 논쟁이 비용 관리에 머물러 있

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혁신을 촉구하기 위한 보상 강화라는 구태의연한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산업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과 바이오 신기술을 내놓는 경쟁은 이미 가속화됐다. 업계 또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전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미래 시장을 주도할 빅파마로 도약하거나 대형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렵다. 한 제약 업계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제약사 신약개발, 하긴 하나"라는 질문은 늘 있었고 "그 의구심만큼 수많은 실패에도 끊임없이 도전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 노력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와 산업계 모두 냉정한 진단 위에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mlee236@metros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1일 (음 1월 2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시간을 투자하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60년생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72년생 과거 헤어졌던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84년생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49년생 작은 것을 원했으나 큰 것을 얻게 됩니다. 61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입니다. 73년생 방향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85년생 많은 이들과 어울리면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50년생 어렵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62년생 뜻밖의 인연이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남자는 비교적 순탄하나 여자는 다소 곤란합니다. 86년생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년생 조금 부족해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3년생 아랫사람을 챙기면 언젠가 도움을 받습니다. 75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87년생 혼자서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52년생 기본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64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잠시 미루세요. 76년생 익숙한 환경보다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88년생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면 현 상태를 꼭 사수하세요.



53년생 큰 일을 이뤄 행복하게 됩니다. 65년생 작은 근심을 버려야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나 일은 이루어집니다. 89년생 님도 보고 병도 따는 하루입니다.



54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됩니다. 66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합니다. 78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입니다. 90년생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55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67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79년생 건강에 유의하고 체력관리에 힘을 쓰세요. 91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춰서 생각해 보세요.



56년생 하는 일마다 장애가 있습니다. 68년생 무리한 확장보다는 소규모 진전이 더 알찬 하루입니다. 80년생 가까운 사람과 불화가 조심하세요. 92년생 오랜 친구가 이성으로 다가옵니다.



57년생 때를 만났으니 바라던 성공하게 됩니다. 69년생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1년생 다름을 허락하면 참고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모든 일이 마침 없이 술술 풀립니다.



58년생 생방이 만족할 만한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사리판단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82년생 과욕을 삼가면 순탄히 흘러갑니다. 94년생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세요.



59년생 따질 만한 일이 아니니 사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1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가까운 파트너를 돌아봐 주세요. 95년생 진로문제로 갈등이 있겠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필자는 2026년 3월 7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웬 법학을? 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 날부터 법의 세계를 이해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 마음을 학교로 옮겼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법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 말은 법의 세계를 좀 더 알면 사회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법을 바탕으로 사람 관계를 더 잘 알 수 있고 책임 의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필자의 아가~사랑하는 나의 아가! 김 산! 사건의 영향이다. 金山은 반려 아가였고 아가는 어느 날 토사곽란이 발생했다. 급하게 동물병원으로 달려가니 입원을 시키라 했다. 수의사의 말대로 입원을 시켰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한여름 장마와 무더위가 최고조로 심할 때 2024년 7월, 장맛비가 오던 날, 내 아가는!! 토사곽란으로 기력을 모두 잃은 상태였던 김 산이는 무더위 찜통, 찜통 속에서 지장보살님 곁으로 갔다. 정신 차리고 보니 병실에는 에어컨이 없이 찜통이었다. 차라리 그냥 집에 있었었다면, 애초에 잘 모르는 병원엘 데리고 간 필자의 첫째 잘못, 병원 위생상태나 간호구조를 살펴도 안 보고 밤새 아가 혼자 두고 온 둘째 잘못이다. 아가가 없는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프고 아파서 고통스러웠으나 필자가 수의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의 무력함. 차가운 이성으로 참아낸 필자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아가 김 산金山을 데려왔다. 책임 권리를 주장하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걸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운 아가 金山과 겪은 아픔으로 10년 계획을 세웠다. 필자 미래의 사명은 내 아가 金山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법대를 졸업하더라도 로스쿨 진학이 매우 어렵다지만 내 사랑 아가 金山을 그리며 진행해 가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6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5			3	4		7		2
	8							
	4	3						6
6				3			4	
1	8					5	7	
	2			7				3
4						2	8	
							1	
8	1		5	6				4

5	7	2				8		9	
	6		3	1				2	
		9	7						
				1	3				
	8			2				4	
					7	4			
						7	3		
7				9	1			8	
	1		4				9	5	7

7	2	8	9	9	2	1	6	8
9	1	9	6	8	7	2	2	8
6	8	2	8	1	2	9	9	7
8	9	1	9	2	8	7	2	6
2	2	9	7	6	9	8	8	1
8	7	6	2	8	1	2	2	9
9	9	8	1	2	6	8	7	2
1	8	7	2	9	9	6	8	2
2	6	2	8	7	8	9	1	9

2	9	6	8	9	7	8	1	2
9	8	2	1	6	9	8	7	2
7	1	8	2	8	2	9	6	9
9	8	9	7	2	8	1	2	6
1	7	2	9	2	6	9	8	8
6	2	8	9	8	1	2	9	7
8	9	7	2	9	2	6	8	1
2	2	9	6	1	8	7	9	8
8	6	1	8	7	9	2	2	9

# 서울시, 청년 주거안정 팔 걷어... “공급·지원·안전망 강화”

### 청년주택 2만5000호 추가 발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 시범 도입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함께 묶어 청년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한다. 서울형 새싹원룸, 공유주택, 디딤돌 청년주택, 청년특화단지,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도 도입해 청년 주거 공급 사다리를 잇는다.

대학가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대학 신입생을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1층 서울 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주거 상담 페어에 참석해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자로 지원하고 SH 등이 반전세 방식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뒤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대학가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1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 2000호, 청년특화단지 1000호, 청년성장주택 600호, 자립준비청년주택

100호 등 총 3700호를 공급해 사회 진입 초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도 도입한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

다.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 수혜 대상은 넓힌다.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미선정 청년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합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대상을 기존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인원을 기존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 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율을 5%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시는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5곳 추가 지정

### 지역 특성 반영한 학습모델 구축 “양적 확산을 넘어 질적 혁신 도약”

기존 평생학습도시 9곳이 인공지능(AI)·디지털 학습,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에 특화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육성되고, 신규 평생학습도시 5곳도 추가 지정됐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체계를 넓히고 정책 무게중심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혁신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0일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201곳 가운데 9곳을 지역 특성을 살린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지원한다. 선정된 도시는 AI·디지털 학습, 지역 산업 참여,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 지역 현안과 시대 변화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도시도 5곳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전국 평생학습 도시는 총 206곳으로 늘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91.2%에 해당한다. 지난해 201곳, 88.9%에서 확대된 수치다.

광역 단위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 여러 평생학습도시가 연계하는 광역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

해 올해 5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AI·디지털, 고령화, 지역 현안 등에 특화된 평생학습 연합체를 구성해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이끌게 된다.

교육부는 ‘2026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특성화 평생학습도시에는 각 3000만원 안팎, 광역형에는 각 5000만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춰 100% 이상의 지방비를 대응 투자한다.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2026년은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양적 확산을 넘어 질적 혁신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라며 “지역 평생학습이 AI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해 지역 주민과 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 서울시복지재단 소득기반 붕괴 등 영향 평균 채무액 2.9억... 60대 이상 3.9억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 가구, 무직 비중도 높아 고령층의 소득 기반 붕괴와 생활고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이하 센터)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1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2023년 63.5%, 2024년 68.4%에 이어 늘었다. 가족의 도움 없이 고립된 채 혼자 부채를 감당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일용·단기직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작은 경제 충격에도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신청자의 평균 총채무액은 2억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평균 3억 9400만원으로, 고령층일수록 보유 채무 장기화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인해 총채무액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현진 기자

## 남양주시, 경마장 유치 행보... “미래형 관광허브 조성”

### 뛰어난 교통망·신도시 인프라 강점

남양주시는 정부의 ‘과천경마장’이 이전 하기로 하자, 뛰어난 교통망과 신도시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경마장 유치 행보에 나섰다.

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균형 발전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경마장 유치를 공

식화하고, ‘미래형 관광허브’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유치 추진의 가장 큰 경쟁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E·F 노선과 지하철 4·8·9호선 연장 등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추진 중이며, 중부연결 민간고속도로 신설과 수도권순환고속도

로,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관통해 수도권 전역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요충지로 평가된다.

특히 왕숙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풍부한 배후 수요와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시는 안정적인 방문객 확보와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3월 11일 (수) 음력 : 1월 23일

수도권 날씨 0 ~ 8 °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3/9, 동두천 -2/8, 가평 -3/9, 파주 -3/8, 서울 0/8, 양평 -2/10, 인천 0/6, 수원 0/8, 용인 0/8, 평택 -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美 정보기관 “군사개입으로 이란 정권교체 어려워”...공습 직전 보고서 /사진 뉴시스

▲ 1~2월 중국 수출 21.8% ↑ 수입 19.8% ↑ ...무역총액 21% ↑

▲ 미국 ‘301조’ 조사 가능성 확산...통상당국 “개시해도 협상 여지 있어”

▲ 노벨상 경제학자 “AI, 인간 노동 대규모 대체 어려워...거품 꺼지면 경제 충격”

▲ 美, 이란 공격 첫 이틀 8조 2000억원 탄약·무기 소모

▲ “성범죄자 파일 뭉갠다” 트럼프 지지도 47% → 44%...부정은 54% 달해



식품·유통업계  
원가상승-가격인하  
사면초가  
니



Life

셀트리온  
오세아니아  
직판전략 통했다  
L2



# 전력 인프라 전환·글로벌 거점 확대... 전선업 미래 그린다

## CEO 와칭

### 구본규 LS전선 대표

제조업에서 에너지 인프라 기업 전환  
해외시장 성과에 성장성·수익성 ↑  
해저케이블·HVDC 세계 경쟁력 인정  
AI데이터센터 확산에 사업영역 확장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사장은 LS그룹  
오너 3세 경영인이다. LS엠트론 재직 시절  
수익성 개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LS전  
선의 체질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통 제조  
업 기반의 전선 회사를 글로벌 에너지 인프  
라 기업으로 전환하는 중심점 역할을 맡으  
며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구 대표 취임 이후 LS전선은 외형과 수  
주 경쟁력 모두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LS  
전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7조5430억  
원, 영업이익 2795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6조2171억원, 2024년 6조7653억원에 이어  
매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전선업은 대  
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실제 매출로 반영  
되기까지 통상 1~3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산업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실적은 구  
대표 취임 이후 복미와 유럽 등 해외 시장  
에서 확대해 온 해저케이블·초고압 프로젝트  
성과가 본격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LS전선은 2023년 싱가포르 전력청 초고압  
지중 케이블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2024년  
에는 유럽 송전망 운영사 테네트와 2조원대  
해저 HVD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수주잔고도 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구 대표가 그리고 있는 LS전선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전력 인프라 기업  
으로의 전환, 고객 맞춤형 제조 역량 강화,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다.

#### ◆해저케이블·HVDC 앞세워 데이터센터 전력 시장 확대

구 대표 체제의 LS전선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업은 해저케이블과 HVDC다. LS  
전선은 이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상용화 역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사장. /뉴시스

#### 약력

- 1979년 9월 6일 출생
- 1998년 세종고등학교 졸업
- 2006년 퍼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7년 퍼듀대학교 MBA

- 2007년 LS전선 미국법인(LSCA) 입사
- 2014년 LS일렉트릭 A&D 해외사업부장 이사
- 2015년 LS일렉트릭 A&D 해외사업부장 상무
- 2016년 LS일렉트릭 산업자동화 해외사업  
부장 상무
- 2017년 LS일렉트릭 산업자동화사업본부장  
전무
- 2019년 LS엠트론 경영관리COO 전무
- 2020년 LS엠트론 경영관리COO 부사장
- 2021년 LS엠트론 대표이사 CEO 부사장
- 2022년 LS전선 대표이사 CEO 부사장
- 2023년 LS전선 대표이사 CEO 사장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초대 회장

량을 확보한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수 업체만 진입한 고난도 기술 영역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구 대표 취임 이  
후 LS전선은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  
과 고온형 HVDC 케이블 상용화 등을 추  
진하며 관련 사업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맞춘 사업 확대도  
속도를 내고 있다. LS전선은 미국 고객사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데이터센터용 버스덕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전압 내화 케이  
블과 AC·DC 겸용 배전 케이블도 잇달아 선  
 보였다. 대규모 전력 수요처인 데이터센터  
를 겨냥해 관련 제품군을 넓히며 사업 영  
역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 ◆“전선업계의 TSMC” 맞춤형 제조 강화 ...턴키 수주 경쟁력 확대

구 대표의 또 다른 전략은 이른바 ‘전선업  
계의 TSMC’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 해저케  
이블 공장 착공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산량과 기술뿐 아니라 고객 맞춤형 제조  
능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전선업계의 TS  
MC가 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해저케이  
블과 HVDC 케이블은 수심과 전압, 거리,  
해저 환경, 발주처 요구 사양 등에 따라 설  
계와 생산 방식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주문  
형 산업이다. 대규모 수주 경쟁에서는 단순  
생산량보다 고객 요구에 맞춘 엔지니어링과

제조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프로젝트 수행 방식에서도 케이블 제조부  
터 시공·설치까지 포함하는 턴키(Turn-Ke  
y)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LS전  
선은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전력공사(TNB)  
가 발주한 랑카위 해저 전력망 2차 사업을  
턴키 수주했다. 이는 과거 수행한 랑카위 1  
차 프로젝트에 이은 후속 사업이다. LS전선  
은 지난해 4월 싱가포르 전력청(SP Group)  
으로부터 싱가포르 전력망 구축 사업의 일  
환으로 230kV급 초고압 지중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도 턴키 수주한 바 있다.

LS전선은 국내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회사는 올 상반기 입찰 공고가 예  
상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서  
도 LS마린솔루션 등과 협력해 턴키 수주 경  
쟁력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 고객 맞춤형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 제조부터 설치까지 턴키방식 ‘차별화’

#### 권역별 생산기지 확대... 글로벌 공략 복미 최대규모 해저케이블 거점 구축 아세안 시장 위한 베트남 인프라 확대

#### ◆미국·멕시코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구 대표의 세 번째 축은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다. 그는 LS전선을 한국 중심의 수출  
기업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주요 권역별 생  
산기지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  
크에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공장이다. LS전  
선은 이곳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복미 최  
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생산 거점을 구축하  
고 있다. 이 공장은 미국 해상풍력 시장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  
략 기지로 평가된다. 구 대표는 미국을 단순  
한 수출 시장이 아니라 ‘제2의 내수시장’으  
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 LS전  
선은 멕시코 생산법인에도 투자를 확대해  
버스덕트와 자동차용 전선 생산 능력을 늘  
리고 있다.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도 강화하  
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해 5월 베트남 하노  
이에서 열린 ‘아세안 전략 워크숍’에서 HV  
DC 전력망과 해저사업 현지화 전략을 점검  
하고 현지 생산 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했  
다. LS전선은 워크숍 기간 베트남 국영 에너  
지 기업 페트로베트남과 만나 해저케이블 공  
장 건설을 위한 세계 혜택과 정부 지원 방안  
도 협의했다. 회사 측은 베트남을 글로벌 H  
VDC 전력망 사업의 전략 지역으로 보고 해  
저 전력망과 데이터 인프라 등  
전방위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LS전선이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해저케이블을 선적하는 모습.



LS전선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 조감도.

/LS전선

## 메트로 한줄뉴스



▲올림픽 최종예선 출전권 확보...신상우호, 4연  
속 월드컵 진출 임박  
▲김연경, IOC GEDI 챔피언스 어워즈 아시아 지  
역 수상자 선정 /사진 뉴시스

▲여자 하키, 월드컵 예선 2차전서 잉글랜드에 0  
-3 패배  
▲한국 8강전 상대 유력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꺾  
고 D조 1위 탈환

▲북한, 여자 아시안컵서 중국에 역전패...8강서  
개최국 호주 상대  
▲MLS, 前 LAFC 예보아·콜롬버스 존스 베딩 형  
의로 ‘영구제명’